

갈보리 채플 의 특징

갈보리 채플 운동의 기본적 원리

척 스미스

역 김동백

오늘의 말씀사

목 록

권두언

목회의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음

은혜위에 은혜

하나님 말씀의 우선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교회의 휴거

성령으로 시작

사랑이 최고

현저한 균형

믿음의 모험

권두언

갈보리 체플이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다른점이 무엇인가? 갈보리 체플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포착 해보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만일 갈보리 체플이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와 꼭 같다면 두교회가 간단히 합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유일 무이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많은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배교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갈보리 체플의 운동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과 은사들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는 중점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 지도를 받는 일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갈보리 체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 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바로 이 두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갈보리 체플 운동의 유일 무이한 특이한 점이며 또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운동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계속 자라게 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갈보리 체플이 다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간단한 기본 원리를 취하시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창조 하심을 볼때에 항상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두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코와 입과 또한 두 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 얼마나 각각 다른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한 정반대로 감정이 무딘 사람도 사랑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들을 창조 하셨는데 어떤 교회들은 감정이 풍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반면 어떤 교회들은 감정이 무디고 침착하고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들을 창조 하셔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형식적이고 침착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 받으시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광범위한 계획에서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고 속해있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갈보리 체플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한 것을 알수있다. 우리가 우리의 교제의 몸임이 특이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라는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목회의 소명

히브리 5: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갈보리 채플의 특징”을 관찰해 보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목회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결단적인 헌신을 결심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 해보야 한다.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절대적인 한가지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에 부르신자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목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문직이 아닌 것이다. 목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있나? 목회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바울이 표현한것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 전서 9:16).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게되고 그의 생명에 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풀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9). 목회라는 것이 항상 황홀한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목회의 길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도있다.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전서 4:12).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찌라도 그 부르심에 불같은 극한 시련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신 할수있나?

내가 첫 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속히 졸업을 하고 나가서 목회를 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 있는 것이 지겨울 정도 였다. 왜내하면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교실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지경인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 했다. 그후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첫 번 목회지로 향하여 갔을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보고 나는 얼마나 실망 했는지 알수 없다. 그리소 시험이 찾아왔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또한 영적인 어려움이였다. 나는 내가 목회에서 기대했던 것과 같은 열매 다시말해서 즉각적인 큰 성과와 흥분되는 결과를 보지 못했다.

목회 초기에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세상의 직장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 했다. 나는 교회에서 나의 생활비를 충당 할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나의 목회 생활에서 첫 17 년 동안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교회 밖에서 세상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과연 내가 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부르심에 대한 질문도 해보곤 하였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변경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적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를 사업가로 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벌이를 해보니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업하는 세계가 어렵지 않고 쉽게 보입니다. 돈벌이 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써 실업가가 되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도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때는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아도 그의 부르심을 철회하지 아니 하셨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불타는 마음은 끄지기는 커녕 더욱 활활 불기만 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간단한 질문으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목회에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그에따라 자신이 그부르심에 대한 결단적인 결심이 동반 해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목회자으로써 가져야할 더 중요한 생명적인 질적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목회가 나의 야망에서 하는것도 아니요 나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 하는것도 아니며 또 나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내자신이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나는 온전히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나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겨버렸다. 만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렸다면 나는 그의 말씀과 그의 목회에 전력을 다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씀 하시기를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42-44). 목회자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이 목사라는 이유로 높임을 받고 또한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목회자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이 서지 않고 나의 하고져 하는 일이 방해 된자 할찌라도 자신을 돌아 보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 해야한다.

요근래 내가 목회자들의 집회에 참석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목사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지저분한 사람들인가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이 뭉이는 방에 커피와 코카콜라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마치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마시다 남은 코우커 강통과 커피 컵을 바닥에다 놓고 모두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돌아 다니면서 흩어진 강통과 컵들을 주서며 강당을 청소 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바닥에 놓여진 커피잔을 실수로 발로 찾을때 바닥의 카펫이 어떻게 될 것을 나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갈보리 채플 목회자들이 이캠프 시설을 사용한후 나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며 섬기는 기회로 보지 않는다. “내가 목사로써 이쓰레기를 치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서 이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목사라는 어휘에 위배 될뿐만 아니라 또한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다.

내가 과거에 한때는 내가 벗은 옷을 온집에 이리 저리 흩어 놓은 때가 있었다. 드디어 나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내가 결혼할때에 당신의 노예로 서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의 옷은 당신이 걸어 놓으세요 왜 내가 당신의 옷을 따라다니면서 걸어야 하냐요?” 그래서 내가 그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내가 맞았어요 나의 아내가 내가 흩어놓은 나의 옷을 일일이 따라 다니며 걸어놓을 것을 기대 하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이었다. 나는 통치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채포되며 십자가에 돌아 가시기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던날 밤에 자신이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사람씩 돌아가며 씻기를 시작했다. 그가 이일을 다하신후 말씀하시기를 “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12-14).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2:21). 목회라는 말이 실제로 봉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 이라고 불리운다. 우리는 종들이다 먼저 우리 주님의 종이요 이말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기도 하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흡연하는 자들은 이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습관을 가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몸에서 담배냄새가 풍겨나며 어디를 가든지 가는곳 마다 더러운 담배 냄새를 남겨 놓는다.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찾아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단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서 냄새를 맡으면 그들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들의 집에서 창문의 휘장에 코를대면 독한 담배 냄새가 현기증을 나게할 정도이다. 이것은 단지 더러운 습관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습관은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담배꽂초의 불을 끄기 위해서 발로 밟아 뒤트는 것이다. 그리하여 담배속이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를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때에 담배를 피우면서 와서 많은 때에 그들교회에 들어가기전에 이 담배꽂초를 땅에 버리고 구두발로 뒤틀어 뭉개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흩어진 담배꽂초를 집어다가 쓰레기 통에 넣을 것인가?

내가 자랄때에 나의 어머니가 항상 내게 말하기를 담배꽂초나 담배는 결코 손대지 말라고 항상 나에게 교훈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담배가 지금까지도 싫어서 만지지 않을 뿐더러 만졌다면 불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된다. 내가 마당에 흩어진 담배꽂초를 치우기 위해서 집을 때 마다 만지는 순간 어릴 때 부터 그것에 대한 싫어하는 어떤 반발감이 내속에 있어 나는 이것이 아주 싫다! 내가 교회 마당을 거닐다가 담배꽂초를 볼때에 나는 교회 마당에 이러한 것들이 흩어져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줍는다. 내가 이것을 주서면서 이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그꽂초를 줍는 내자신을 볼 수 있다. 나는 속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생각없고 조심성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를 봉사하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불평을 그치라” 라고 말씀 하셨다. 그래서 봉사할때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말라. 주를 섬길때에 분개한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 내가 담배꽁초를 집어 청소 할 때에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개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님 제가 이 더러운 교회의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없이 담배꽁초를 치우고 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내자신을 볼수있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17).

목회에 있어서 이 이상더 중요한 태도는 없는 것이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맞나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주님께 대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않된다. 우리는 감사할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들을 맞나게 될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가련한 사람들로써 항상 목회자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들을 봉사 하리라” 라고 생각 한다면 언젠가는 지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봉사한다” 면 그때는 당신이 그것을 잘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해야만 한다. 주님께 봉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에대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하지 말라.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또는 “목사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때에 그러한 말을 들을수가 없다.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애쓰고 힘쓰고 또 도와 주고 해도 사람들은 감사는 커녕 더 도와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 불만과 비평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며 주님께서 나의 수고에 대한 사급을 주시리라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봉사 해야 하는 것이다. 이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시다. 주님이 나의 봉사에 대한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 내가 사람들을 봉사 할때에 주님께 봉사하며 그에 대한 대가와 상이 주님께로 부터 온다는 마음 가짐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목회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슬픈 사실이나 만일 그러한 이유로써 목회자를 제거한다면 미국 목사들의 50% 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왜 당신이 믿지 아니하는 책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그리고 말할것도 없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말씀에 전념을 다해야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다듯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15). 당신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침을 받으나 성경을 배우는 과정은 끝이 없다. 오늘날 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받는 자로 드리기를 힘쓴다.

제 1 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

마태복음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갈보리체플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찾고 있다. 교회역사를 바라볼때에 대부분이 슬픈 사실과 실패의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 교회의 깃발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내가 대학을 갔을 때 교수들이 내가 크리스찬 인것을 알고난후 나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들은 내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교회사의 비리를 들춰 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반응 하기를 “여보시요 역사에서 볼수있는 불완전한 표본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지 말고 기독교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판단해 보라 그가 하신 말씀과 가림침을 한번 살펴봅시다.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가림침에는 회의론자들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문제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요 그들이 예수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문제인 것이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쓰신 편지가 있다. 심지어는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거짓 교리가 몰래 침투하여 교회내에서 썩어진 씨가 뿌려져 점차로 자라고 있으며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흠들을 지적 하셨다. 교회가 시작한지 일세기 말엽에 교회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노스틱 주의 와 아리안주의 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성직의 발전과 교회조직의 설립이 교회역사의 초기에 이미 시작 되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시 않은 일들을 나열하시고 책망 하셨다.

이때가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지 육십년도 되지 않았을 때이다. 교회가 부패하여 차지도 덩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구역질나서 토해 내시겠다는 상태에 이르는 일이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교회사를 볼때에 교회의 부패상이 나를 부끄럽게 하며 현재에도 그부패상이 수정된 것도 아니다. 교회가 더욱 부패하고 있는 상태를 볼수 있다.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들에게 책망하신 상태들을 현대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마치 인류의 역사를 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크신 뜻을 사람에게서 발견 할수가 없다. 그와 같은 진리가 교회에도 적용 되는데 교회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볼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다이내믹(능력있는 교회이다) 하다. 이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교회 였다. 참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는 교회였다. 바울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은후 30년 경에 골로세 성도들에 편지하기를 “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은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세 1:5-6). 초대교회의 처음 믿은 성도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교회를 경험 하였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교회의 양상을 잘 볼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모범적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이다. 성령이 교회가 할일을 직접 지시 하시고 성령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임을 볼 수 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께 의존 되고 있나 함을 알수가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볼 수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2-3). 바울이 사용한 구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28),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7).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성령의 지도를 찾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극심한 핍박을 직면 했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초대교회에 네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42). 이 네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믿는자들이 뭉여 개척교회를 시작할때에 준수해야할 규칙으로 삼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사도도 교회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권을 가지며 성찬의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주심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는것은 목사의 할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목사가 해야할일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며 양떼를 사랑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양떼의 수가 적을 때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21). 하나님은 당신이 적은 수에 충성을 하지 못할때에 많은 수를 맡겨 주지 않으신다. 교인이 천명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오천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8명 혹은 10명의 교인들을 잘 목회하라. 그들을 목회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여 하라. 그들을 양육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얻을 자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교회의 크기가 당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결코 않된다.

현재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그들의 주된 목적이 어떻게 하면 교인의 수를 증가 시키나 하는 것이다. 교회들의 세미나 혹은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 할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 시키나 하는 것을 배우려고 \$175 씩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상고 하게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하게하며 또 성찬의 떡을 떼때에 주님께서 구원얻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심을 볼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직 어느 교단에 속해서 목회 할때에 내가 행한 가장 현명하게 행한일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들은 항상 교인 출석 도표를 벽에 붙쳐 놓고 이번 주일 출석수가 몇 명이며 지난주가 얼마였고 일년전이 몇 명이 었다 라는 도표를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보게 하여 숫자에 계속적인 강조를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자의 통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교인수가 어떠 했으며” “작년에 교인 수가 얼마였고”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왜 교인수가 이렇게 줄어 들었나?” 사람들은 항상 교인수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사람의 머리수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중지하라. 다만 오늘 교회에 참석한 자들을 바라보고 이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들을 목회할때에 마음 깊이에서부터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부지런히 주께서 보내주신 적은 수의 사람들을 목양하며 신실한 청지기로서 자신을 증명할때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도를 받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 구제에 관해서 약간의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볼 수 있다.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파 과부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못마땅함을 호소 했던 것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말하기를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6:2-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함께 가장 우선권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교제(Koinonia)하는 일과 떼먹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교회로 이뤄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할때에 주님께서 구원 언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할실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영광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사람을 쓰신다. 베드로가 나면서 앓은뱅이 된자를 고친후 무리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견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사도행전 3:12-13). 라고 말했다. 심지어 베드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후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향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초대 교회의 목적 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쓰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을 볼때에 나의 마음이 무거워 진다. 이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조명이 밝은 무대 중심부에 두고 카메라의 중심 인물로 촬영되며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 쓰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 하시기를 자기르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12).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살라.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기도요 나의 끊임 없는 기도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바울도 같은 소원을 가졌다. 그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할 때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성공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렸을때에 당신은 저 외각 지역 존재 없는 곳에서 열명의 신자들과 교회 생활하며 겨우 연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 보다 훨씬 위험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쉽다. 그곳에는 자신을 높일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의 성공이 오기 시작 할때에 그때가 아주 목회에서 위험한 자리인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때에 그것을 받아 드리기가 아주 쉽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종료 시키는 지름 길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6-7). 승진이 오늘날에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같이 보인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승진 시키는데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아니면 자신들을 승진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참된 승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모범된 표본 교회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요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다--이것은 성도교제요 또한 코이노니아 이다. 떡을 떼는 교회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는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은 날마다 더하실 것이다.

제 2 장

교회의 정치체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 1:22)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정치에 대한 세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발견 할 수 있다. 두가지 형태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한 형태이다. 첫째 교회의 정치형태는 감독에 의해서 통치 되는 것이요 헬라말로는 ‘에피스코프스’라고한다. 디모데 3:1절에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라고 기록 했다.

“디모데는 ‘에피스코포스’에 대한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 전서 3:2-7).

또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는 장노 혹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부르는 재능이 있는 자들의 그룹이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23). 라고 기록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분명히 감독(*episkopos*)과 장노(*presbyteros*)를 임명 수립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두정치 형태는 그 직책의 본질상 서로가 충돌하기 쉽게 보인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장노로 구성된 보드에서 이끌어야 할 것인가? 감독이나 장노들이나?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하여 두교단으로 나뉘지게 된 것이다. 에피스코팔 교회는 감독제도를 따르며 이들은 교회가 감독의 통치하에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장노교회 혹은 프레스비테로스 교회는 장노들로 구성된 당회(보드)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교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교단이 교회 정치의 올바른 형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여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견지에서 보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으나 성경적으로 수락될 만한 이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정치의 셋째번 형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회중정치로 알려져있다. 나는 회중정치 체제는 아예 선택의 여지에 들지도 않는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회중이 옳았다는 경우를 성경에서 전혀 볼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중은 항상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요구를 한 것이 회중인 것이다. 나는 회중정치가 효과있게 시행된 성경적인 표본을 찾아 볼수가 없다. 우리는 회중이 통치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건을 읽을수는 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출애굽기 16:2). 그리고 민수기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민수기 14:1-3)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민수기 14:27). 그래서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 모세가 당했던 것 같이 그목사는 다만 수근 거리고 반역하는 일만 경험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정치 형태가 기본적으로 세형태로 되어있다. 첫째는 감독정치(*Episkopos*), 장노정치(*Presbyteros*) 그리고 요 근래 발생한 회중정치(*Congregationalists*)이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모형으로 세운신 정치 형태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정(新政, Theocracy)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발단 할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였다. 곧 하나님의 통치의 체제였다.

그들의 봉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그대신 왕을 요구 한데서 부터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을 원한다” 라고 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 주기를 요구 했을때 크게 실망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선정의 예를 살펴보자. 하나님 아래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그들이 가야할 방향과 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다. 모세는 나라를 위한 율법과 규칙 그리고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해야할 일들에 대한 지도를 하나님께로 부터 받았다고 인정을 받는 이땅위의 지도자 였다. 사람들은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로 인정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두렵다 그는 너무나 위엄하시고 두려운 분이다. 우리는 불과 천둥을 보았다. 당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와 대화하시고 내려와서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순종 하겠나이다. 우리는 올라기를 원치 않으니 당신 혼자 가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전했다.

모세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찾아 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혼자서 감당 하기가 힘들었다. 모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자기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판단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여 나의 이웃이 팽이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며 모세는 이것을 심판하여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매일같이 같은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때에 장인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사위 자네가 이일을 이런식으로 매일 계속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얼마 못되어 자네가 쓰러질 것일세 자네 혼자서 이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노 70인을 세워 회중의 천막으로 뚫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고 그들을 백성 앞에 세우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8:13-27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15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이라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18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27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신정의 형태를 더욱 보좌하는 예로써 아론과 제사장은 모세 아래서 나라의 영적인 일에 필요한 일들 곧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일들을 감독해 왔다. 장노들과 아론의 아래에 이스라엘 회중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설립한 정치형태였다.

오늘날 교회서도 수정된 형태를 가진 이와같은 구조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책임자요 지도자인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 항상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방향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목사인 우리는 교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때에 사람들은 이교회는 과연 주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알게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때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주님께 물어 볼 수 있는 기도시간을 달라고 하며 이문제에 관해서 주님의 지혜를 찾아야 겠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모세와 같이 교회에서 장노들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을 찾으면서 장노들은 목사들을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위해 기도함이 중요하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경고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테전서 5:22). 사람이 어떠한가 잘알고 그후에 권위의 직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동안 하기 까지는 자세히 알기가 힘들다. 많은 경우에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며 능력있는 교회가 될 때에 문제가 야기함을 잊어서는 않된다. 그들이 은행에 많은 돈이 저축된 것을 볼때에 그들은 그것을 지배 하려고 직분을 가지려 한다.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시고 기쁨 부으신 경건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은 그러한 가람과 함께 일할 것이요 교회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협력하여 도울 것이다. 좋은 장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보드)는 당신의 목회에 가장 큰 저력 이다. 나는 코스타메사의 갈보리 체플교회의 보드 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토요일 밤 기도회때와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드 위원을 뽑는다. 우리는 가도하는 가람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보드 위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 우리교회의 보드 위원은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지금 참된 장노들은 “예”라고 만 대답하는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목사인 나를 보고하고 감사준다. 그들의 직분은 성도들과 목사와 연결하여 교회가 조화를 이루워 나간다. 교회에서 성도들로 부터

문제를 가져 올때에 장노들은 그문제를 잘 관찰한다. 많은 경우에 그문제에 대해서 장노들이 답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서 결정한 정책이므로 이러 합니다” 라고 대답할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가지않고 거기서 해결을 본다. 어떤경우에 보드 위원이 말하기를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가져 왔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는 대답하기를 “그일에 대해서 아직 내마음에 강한 동의 가지 않으니 이문제를 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 해 봅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됨을 본다.

내가 아리조나 주의 투산 시에서 젊은 목사로써 교회를 섬길때(이것이 나의 두 번째 섬기는 교회 였다). 우리가 매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에 교회에서 년중 행사로 레몬 산에서 교회 야외 피크닉을 가게 되어 있었다. 7월 4일의 투산의 계곡은 화씨 110도이다. 그래서 레몬산에 올라 가면 온도가 떨어져 서늘해서 좋다. 레몬 산의 국립 공원은 피크닉하기가 매우 좋은 곳이다.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흐르는 수도 시설도있고 야외 기탁이며 아들이 놀 수 있는 넓은 장소도 있다. 이곳은 교회에서 7월 4일에 교회가 피크닉 가기에 안성 맞춤이다.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한번은 보드 위원중의 한사람이 말하기를 레몬산에 일 에이카 되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쉼여 지내는 것 보다 따로 나의 땅에 와서 피크닉을 갖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그때 우리는 묻기를 “그장소에 변소가 있는가?” 그의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수도 시설이 있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번에는 온 교회가 하루를 주님께 금식 기도하며 보내자” 라고 제의 했다. 목사로써 교인이 주님께 금식기도 하자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자고 말할수 있겠는가? 만일 목사가 그 의견에 반대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 내는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한 그룹이 의논 하기를 그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며 우리 교회만 가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 아주 영광스런 시간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그룹은 말하기를 “수도시설도 없고 변소도 없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러한 곳에 간단 말인가? 우리가 금식 기도 할때에 아이들은 누가 볼것인가.? 교회에서 그곳에 간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이제 영적인 그룹이 말하기를 “만일 교회서 국립공원에 간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영적인 면을 아주 강조 함으로 교회가 두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다.

여기서 매년 교회가 년중행사로 7월4일 공휴일 때 즐기던 피크닉이 이러한 의견의 차로 분렬하게 되어 교회가 쓰디쓴 맛을 보게 되었다. 이럴 때 양쪽 그룹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최 목사님, 7월 4일 공휴일피크닉은 어디에서 보내실 것입니까? ”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기를 “보드에서 결정하기로 하자라” 라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보드 회의를 열어서 만장 일치로 국립공원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회중에게 선언하기를 “이번에는 보드 회의에서 온교회가 국립공원에 가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그룹에게 가서 “하루를 주님께금식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서 금식기도 하자”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엔 교회적으로 가는 피크닉은 국립 공원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드가 그러한 결정을 내려 주웠기 때문에 양편을 모두 만족을 시키면서 문제없이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보드가 이러한 진퇴 양난에서 나를 감싸주어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두의견으로 나뉘었을때 만일 목사가 어느편에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반대편의 교인들과 자연적으로 대립이 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럴때에 보드가 결정하므로 어느편에서도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할수 없으므로 목사를 보호할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은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데 기름부음을 받은 도구로써 주님께로 부터 통치를 받고 이것을 은회중이 인정하며 그러한 원칙하에 보드가 주님의 지시를 따라 나가는데 구체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보완 하는 것이 도우는 목사 즉 부목사들의 사명이다.

그들은 거기서 매일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면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가진 큰 교회의 정치체제의 목사로 있는 당신은 삼군의 위치에 있어서는 않된다. 교회에서 삼군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장노교 정치체제를 가진 교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보드가 통치 하는 것이다. 보드가 목사를 채용도하고 해고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 체제는 목사가 삼군이 되는 것이다.

회중 통치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것 보다 회중에게 고용되어 삼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사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것 대신에 회중이나 보드에 의해서 선택이나 투표로 선출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목사가 삼군이 되는 것이다. 아무도 삼군으로써 가장 좋은 일의 효과를 나타낼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목회를 도우는 근본적인 일의 기능은 집사의 일이다. 그들은 교회의 물질적인 일을 돌보며 또한 교인들의 필요한 것을 돌보며 병자들을 도와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아주 나쁜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어서 보통 성도들 보다 높은 위치에 놓는 일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자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의 축도의 말씀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다서 2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이 흠이 없게 되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신이 목회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이였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에베소 3:8).라고 했다. 자신을 평가하기를 모든 성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자신을 가르켜서 진술한 말은 “죄인 중에도 괴수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워진 것을 깊이 깨달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기술한 사실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목사 혹은 교회의 지도자의 주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사는 자는 에페소코포스(감독)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육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양상이 육신 적인 것을 말한다. 사탄은 밖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하는자를 넘어 트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모두는 넘어질수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31-32).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33). 그는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도 가겠나이다.”라고 했다. 그가 온전히 성령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러한 자신감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그의 생활에서 다룰 필요가 있었듯이 또한 우리 모두의 생활에서 다루워져야 할 문제이다. 자신감에 대해서 주님은 점차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 힘이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셨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18). 언제나 우리가 그 원칙에 예외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만 의지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짐을 허락 하신다.

우리가 육적인 면으로 들어가 욕을 쫓아 살기로 결정 할때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위치에서 즉시 우리 스스로가 자격상실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취한다면 우리 모두는 목회를 그만두고 보따리를 싸서 목회 현장을 떠나 자동차 판매하는 직업이나 구하는 것이 낫을 것이다. 나는 회개가 열쇠라고 믿는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 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참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나는 장노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을 관찰해 볼때 그들은 많은 경우에 목사를 찾고 있지만 실상은 사군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사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목사가 와서 자기들의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줄을 땡길때 그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면 당신은 고용된 사람으로 있을수 있으나 만일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갈보리채플에 오기전에 내가 코로나에서 집에서 시작한 가정성경공부가 자라서 교파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시작 하게 되었다. 가정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로나 크리스찬 협의회”라 이름짓고 주정부에 등록하여 사람들의 헌금이 세금혜택 공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 일차적으로 나를 코로나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라디오 시작하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떠나 독립 하기를 원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초청하여 코로나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였다. 나는 그초청을 받아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크리스찬 센터”를 시작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나는 아직도 뉴포트 비취에 살고 있었고 주일마다 그곳에 운전을 해갔다. 우리는 주일 하루종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주일 밤에 집에 돌아오곤 하였다. 어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세를 주고 예배드리는데 미국재향 군인회관에서 나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에 나는 의자를 줄로 지어 놓는 것 보다 등걸에 놓고 강대상을 치우고 큰 원형을 이루워서 가정 성경공부 형태와 같이 서로 마주 보도록 하였다. 울간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추워서 찬송가를 석자를 부르기 보다 무반주로 찬송을 아카펠라로 불러 회중을 인도 하였다. 그후에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리고 형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의자에 둘러앉아 있고 내가 성경말씀을 가르쳤다.

나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느껴졌고 그날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히 컸다. 그날 나는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 하심을 경험 했다. 거기서 그날밤 몇사람은 평생 공중 기도를 해본적이 없는 자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자들이 감화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보드 위원들이 그후에 특별한 회의를 위해서 모였다.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나에게 전화 하여 말하기를 전날밤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묻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의 목회이며 나는 어떤계약도 받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갈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채플에 왔을 때 교회 헌법을 재정할 때 장노교 식의 장노 정치를 설립하지 않았다. 갈보리 채플은 다소 에피스코포스(감독) 정치체제인 이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는 목사는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장노들 그리고 부목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신령이 하나님님의 교회의 모델이라 믿고 있다.

제 3 장

성령의 능력 힘입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또 다른 갈보리체플의 특징은 성령에 관한 우리의 위치이다. 믿는자가 중생함을 받을때에 성령의 내재하심과 그리고 믿는자의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나는 경험과는 다르며 믿는자에게 중생함과 성령의 능력 받는 것 두가지 경험으로 구분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을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다. 성경의 어떤 번역을 보아도 성경은 구원얻는 중생의 경험과 성령의 능력 받는 것, 성령에 관한 이 두 경험이 분리 되어있고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내려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 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사도행전 8:15-16).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두가지 분리된 독특한 역사, 곧 구원과 성령의 능력 힘입힘의 일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37-38).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님을 만나 중생함을 받았다. 그가 다메섹에 왔을 때 주님의 명령으로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그는 시력을 다시회복하고 성령을 받았다.(행 9장).

우리는 중생의 경험과 성령의 능력 받는 경험 두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과 믿는자의 사이에 세가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지한다. 헬라 말의 전치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함께('para', 영-with), 둘째는 속에('en', 영-in), 셋째는 위에('epi', 영-upon).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7). 여기서 너희와 ‘함께’는 para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곳이 너희의 곁에서 함께란 뜻이며 en은 ‘너희 속에’란 뜻이며 영어에서 in이란 전치사와 같으며 그가 너희 속에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령이 중생 이전에 그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가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시켜 주신다. 성령은 죄에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투울 심판에 대하여 끊임 없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드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사람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심을 믿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활을 통치하고 조절하기를 원하여 그의 마음속에 영접할때 성령이 그 사람의 생활속에 오심을 믿는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를 영접할때에 성령이 우리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바울은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18).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마다 그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아래서 그의 몸을 성령의 조절에 맡기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믿는 자의 생활에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승리 할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 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행하며 육신을 좇아 행치 않음을 배웠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 생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며 타락한 기질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생활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신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그래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할때에 성령이 우리속에서 (헬라말은 'en', 영어에서 'in') 내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볼수 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 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믿는자가 갖는 첫번 두 가지의 관계와 다른 셋째번의 관계가 있음을 믿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이러한 관계는 성령이 당신의 위에 임하실때를 말하는 것인데 헬라말에서 'epi'라는 말로 표시 했는데 영어의 전치사의 번역이 'upon ' or 'over'로 번역 되어 있다. 나는 넘친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에서 넘쳐 흘러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이 단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흘러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도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의 객관적이 역사이다. 성령의 첫 번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인데 이것은 성령이 나의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경험은 성령의 놀라운 다이내믹한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 주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있게 증거하도록 성령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힘입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 날때에 나의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2).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말한곳이 성경에 있는지 보여라. 성경에서 이것이 상징적이란 말이 한곳이 하난도 없다. 이것이 상징적이면 왜 요한이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하실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 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 하셨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그들은 주님을 효과있게 섬기기 위해서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왜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두고 말씀 하신 것이다. 그는 무리들에게 일으켜 크게 왜쳐 말씀 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37-38). 그리고 요한은 주석을 달아 쓰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39).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성령세례 혹은 성령의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종류의 넘침일까? 이것은 믿는 자의 생활에서 넘쳐흐르는 급류같은 생수의 넘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번 경험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경험은 성령의 넘쳐 흐르는 것이 있다. 성령이 내속에 임하심은 능력과 다이내믹한 일이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생활에서 넘쳐 흘러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과 변화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세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들찌는 너희속에 그리고 셋째는 그가 너희 위에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겠다고 하셨다. 성령이 우리가 중생을 받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죄에대한 가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죄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뿐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후에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속에 영접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다. 당신 속에 내재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예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빛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수있도록 도와 주시며 또한 당신을 그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다. 당신이 혼자 스스로 할수없는 것을 성령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다.

바울이 말한것과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또 그는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 기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이 나의 생활에서 넘쳐흘러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컵에 물이 넘쳐 흘러 나는 것이다. 하나는 성령이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이 당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당신 생활에서 넘쳐 흘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같이 목회를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히우기 전에는 목회를 허락 하지도 않으셨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4).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다. 이것이 'epi'의 경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에서 'upon'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능력 입히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대개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경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고넬료의 집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바[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할때에 그들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epi’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47).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증생과 성령의 내재로부터 구별된 경험이 있을 믿는다. 어떤이들은 이것을 성령세례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충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신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 뜻이 성령의 넘치는 경험을 말한다. 당신이 컵을 가득 채울수 있다. 만일 당신이 계속 그컵에 물을 붓는다면 그컵은 넘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넘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 입히움이라 부른다.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졌느냐 가 문제이다. 우리가 신학적이 용어로 서로 논쟁을 벌일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성경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 힘입히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간단하다. 당신은 그능력을 받았느냐?

제 4 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갈보리 채플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딱딱하지 아니한 격식 없는 스타일이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흥분에 관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육신적인 동기로 일을 하도록 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회중을 향하여 고향치지 않는다. 이러한 주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르는 신앙의 태도에서 태동한 것으로 믿는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집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흥분적으로 하는 일과 압력에 의해서 하는 노력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씀 하셨듯이 자기의 교회를 친히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으면 된다.

만일 우리가 교회는 그의 것이요 그가 지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된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할때에 압력이 나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흥분하고 압력을 받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광대한 일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짐이 너무 무겁다. 그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힘으로 할때는 이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인간적인 조작을 해야 하는 압력에 내자신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난 1969 연도 경에 우리가 현재 교회 위치에서 한 블록 떨어진 선 플라워 와 그린빌 거리의 모퉁이에 1.5 에이크의 땅을 구입 한적이 있었다. 이건물은 그때에 옛날 시골 학교 였다. 우리는 그 건물을 분해하여 그 재료로써 조급마한 예배당을 지었다. 우리가 기존한 건물을 분해한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앉는 좌석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짓는데 약 40,000 불이 소요 되었다. 2년 후에는 이 예배당이 좁아서 아주 적당치 못했다. 우리는 3부 예배를 보아야 했고 마당에 의자를 500석이나 추가해서 놓아야 했으며 사람들은 자동차를 그의 일마일에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 LA 타임스 건물까지 주차 하게 되었고 남북으로 놓여져있는 페워뷰 거리상에도 고속도로 405에 이르도록 약 일마일 이상의 거리에 자동차를 주차 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의 협소한 장소와 주차장장에 대해서 무슨 간구를 대책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때에 현재 갈보리 채플이 위치하고 있는 땅이 판매에 나와 있었다.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한사람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사람이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한 그룹을 만들어 11에이카 에 해당하는 땅을 구입하여 이익을 남기고져 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산타아나 시에 제출하였으나 그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거절 당하고 말았다. 그때에 그들은 350,000불이라는 차액 잔고의 일괄 지불의 날자가 닳아 오고 있는데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그땅의 소유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것을 모두 잃게 되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인 그 부동산 업자는 나에게 와서 교회가 이 땅을 구입 할 것을 중용 했던 것이다. 그때에 나의 반응은 “세상에 우리가 11 에이커나 되는 큰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라고 일소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사람은 말하기를 이땅을 사서 우리가 언제든지 한부분을 팔수도 있다고 암시 해주었다. 그때에 교인 중에 또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300,000불에 그땅을 살수있을 것을 확신 한다고 말했다. 나는 말하기를 “우스꽝스런 소리 말라 그 여주인이 유질처분(FORECLOSED)의 액수를 350,000불에 내어 놓았는데 어렵도 없는 말 하지 말라 그 여인이 왜 300,000불에 팔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때 그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그 여인에 대해서 사정을 좀 아는데 금 땅 여주인이 이 사람들로 부터 이자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들이 요즘래 이자를 내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또 이자를 낼 돈도 없는 형편이며 그여인의 나이가 80에 가깝고 또 현금이 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300,000불에 땅값으로 제의하면 그여인이 아바 받아 들이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군 그러나 도대체 300,000불이라는 현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대답 하기를 “우리가 300,000 불에 구입 하면 은행에서 땅값의 반의 액수의 돈을 빌려 줄것이며 또 우리교회 재정이 은행에 110,000불이 있고 내가 90,000불을 무이자로 일년간 빌려 줄테니 살수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여인은 결코 그값에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나에게 교회이름으로 그여인에게 그값에 이땅을 살 것을 제의 하도록 허락만 해주시오”로 요청 했을 때 나는 “좋습니다”라고 허락 해주었다. 조금 있다가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기를 “척 그여인이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때 나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야 좋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때에 페어뷰 거리가 산폴라워 거리를 통해서 방금 완성 되었을 때였다. 나는 다른 채플에서 나와 페어뷰와 산폴라워의 모퉁이에 까지 운전하곤 했는데 내가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릴때에 나는 이 넓은 평야와 같은 큰 땅을 바라보고 불안하여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빛도 갓고 부채도 없으며 은행에 60,000이나 되는 잔고도 있고 지금은 흑자로 일이 잘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큰 땅을 사서 앞으로 이땅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교인들에게 빛을 지게하는 부담을 주게 될것이니 왜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또대체 나의 두뇌가 어디에 있나?라고 불안해 하였다.

나는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을때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냐?” 나는 대답 하기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파산에대해서 염려 하느냐? 나는 생각 하기를 왜 내가 파산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아니고 파산을 한다면 주님이 파산을 하는데 왜 내가 염려 해야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누가 문제를 야기 시켰는가?” 주님이 일을 만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 심니다. 장소가 더욱 필요 하도록 만든이도 주님이 심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문제 임을 확인 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상태를 창조 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내가 다음 거리의 모퉁이 까지 운전해 와서 그넓은 땅을 바라보고 나는 큰 안도의 숨을 내 쉬게 되었다. 나는 완고한 종류의 사람으로 한동안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나니 나의 마음에 큰 짐을 덜게 되었다. 이제 내가 나혼자서 이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됨으로 아주 아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잘 돌보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Matthew 16:18). 주님은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이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6)라고 물었을때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사랑 하는줄 주께서 아시 나이다” 그럴때에 주님이 “가서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다. 주님은 말씀 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고 돌보라”라고 하셨다. 교회에 사람의 수를 증가 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양들을 사랑하며 그 양들을 치는 것이다. 주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더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또한 그얻은 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인위적으로 밀어 부칠때에 당신은 그 얻은 것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 또한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세운 프로그램을 유지 하기란 아주 힘들다.

오래전에 내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을때에 나는 교회를 지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암시하고 제한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 했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성장 시험 같은 것들이 있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사용된 이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다 사용 해 보았다. 내가 한가지 발견한 사실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은 그 얻은 것을 유지 하기위해서 계속 애쓰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내가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또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만일 주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이 더하시므로 당신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다. 목회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목사가 지쳐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밀바다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애쓰 뚫은 무리들이므로 이제 당신은 그무리들을 유지 하기 위해서 애쓰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힘든 일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게된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볼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 기름을 치고 밀고 땀기고 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곧 이것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유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일들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죽이고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 피곤에 빠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것을 유지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을 위한 노력이 단지 최근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흥분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으날수 있다. 그러한 곳에서 교회의 성장이 영적이며 감정적인 흥분과 성령의 흥분적인 은사에 의하여 일어 날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아주 힘든 종류의 상태인데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한 영적인 흥분을 일으켜서 균형을 매혹하여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이 일방통행의 길로 시작 한 것이다. 그래서 거면 갈수록

일이 어려워 질 뿐이다. 만일 당신이 초자연적이요 누부신 장관을 랍들에게 나타 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주된 힘이라면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현상으로 끌어들이 무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색다른 다른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특이한 점은 아무리 매혹적이요 색다른 경험을 가졌다 할찌라도 우리는 곧 그것에 권태를 느끼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매력적인 영적인 경험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흥분과 진율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 더많은 능력이 계속요구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한 예를 들어 내가 보트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오래전에 내가 12피트 되는 존슨 25hp의 엔진을 가진 보트가 있었다. 이것은 흥분적인 경험 이었다 그리고 이 보트를 가지고 수상 스키도 배웠다. 놀라운 한 여름을 보내었다. 이제 겨울이 와서 제블린이란 14피트 되는 보트를 샀는데 25hp 엔진은 도저히 힘이약하여 배의 속도를 낼수가 없었다. 그래서 머큐리 55E 엔진을 사서 달았더니 속력이 더욱 빨랐다. 우리보다 앞서 가는 배가 아무도 없었다. 아주 신이 났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지나가는 75E 좀더큰 엔진을 가진 보트를 보고 55E 와 바꾸었다. 이제는 큰 엔진은 샀지만 배 자체가 조금 엔진에 비해서 작았다. 그래서 이제는 배밖에 다는 엔진을 살것이 아니라 배속에 있는 자동차와 같은 엔진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쉐비 354를 구입했다. 언제 더 큰 것을 사는 것을 중단 할 것인가? 다행이도 나는 중지했다. 항상 조금 더 크고 조금 더좋은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마찬 가지로 영적인 흥분을 통하여 만들어진 매력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란 말을 하면서 주님의 명하신 예언을 말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새롭고 어떤 다른 것을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조절할 수 없는 웃음이라 듣기 아니면 개가 짖는 소리를 낸다듣기 아니면 사자가 우는 소리를 내는 일을 하는 자리에 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교회들은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자꾸만 변경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당신이 처음에는 합리적인 것을 하다가 그것이 다 진하면 그다음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새롭고도 이상한 다른 종류의 영적경험을 계속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같은 종류의 영적흥분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갈보리체플은 감정적인 흥분을 빼낸 것이다. 우리는 육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영적인 흥분을 추구함으로 사람들에게 호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무진장한 보고 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고갈치 아니한다. 이 생명의 말씀은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 날 따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자유스런 태도를 가지게 마련인데 이것이 우리의 목회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땀을 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혹은 어떻게 친절한 교회를 만드나 또는 오개년 계획을 세워 어떻게 교회를 성장 시키나 하는 세미나를 할 필요도 없다. 5년후에 내가 여기 있을지 누가 알수 있나! 오늘 맡겨 주신 목회에 충성을 다하자!

나는 페닉스에 있는 사회적인 전략의 한 그룹의 지도자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세천년으로 들어 갈때에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향을 연구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 모임에는 아주 몇 유명한 인사들도 미래의 전략을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고 있었다.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전략을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 라는 모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일 어떤 것이 부서 지지 않았으면 고치려 하지말라” 라는 말이 사회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축복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 할것이며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 얻을 자들을 더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 하신것과 같이 그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축복하시는 한 나는 만족 할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왜 내가 변경을 해야 하나? 잘되고 있는 교회를 왜 다시 바꿔야 하는가? 만일 그것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가르치 겠는가?

물론 사회자는 그말에 대단히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나머지 하루의 시간을 가시 돌친 말을 주고 받고 했던 것이다. 흥미 스러운 일은 그이후로 다시는 그 모임에 내가 강사로 초청을 받지 않았다.

나는 구약 성경 공부가 끝날 무렵에는 나는 신약 성경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것을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 신약 성경을 끝낼 무렵에는 또다시 구약 성경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주 흥미 진진한 일이다. 이 성경말씀 전체를 끝낼 때마다 우리들이 자라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며 또 큰 유익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된다. 목사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교인들도 풍성한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퀘퀘 목은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기교나 책략이나 경험 같은 것을 교인들을 유치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람의 영을 축복하는 것이다.

제 5 장

은혜 위에 은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 13:9).

갈보리 채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목에 관해서 특징적인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살아 남을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위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타락한자를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회복케 하는 것을 믿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심히 결핍되고 있다.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케 할수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고 아주 가혹 하고도 융통성이 전혀 없는 심한 율법주의의 형태에 얽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 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취하는 역할을 당신들이 보면 놀랄 것이다. 내가 텔런트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원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때마다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뺏아 가기에 열안이 되어 날뛰는 사탄을 볼때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위치를 지켜 왔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가르침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그의 가장 큰 특징들 중에 하나이다. 만일 그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였다라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우리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내가 기도 할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해달라고 하나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고 자비나 은혜를 구한다. 주님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하게 해한 자들에게는 공의로 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주님은 우리가 자비를 얻게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실 때 아주 흥미 있는 일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해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는 것과 동등시 하게 보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본적인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은 간구하는 것 가운데 단한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용서에 대한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5).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용서의 필요성을 다루고 계신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일천 육백만불의 빛을 진 중을 탕감해준 주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종이 나가서 자게에게 16불의 빛을진 동료를 빛을 갚지 않는다 하여 감옥에 가두워 버렸다. 주인이 그중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갚을 빛이 얼마나? 내가 그 빛을 모두 탕감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듣기로는 너에게 작은 빛을 진자가 갚지 않았다고 하여 감옥에 가두웠다 하니 어떤 일이나? 주인은 그중을 책망하고 네가 그 빛을 한푼도 빠짐없이 갚을 때 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리라 하시고 옥졸에게 불었다”(마태복음 18:23-35).

만일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형제들도 용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넘어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서있다. 나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행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것이 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 할수있는 한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대목인 것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두 공관 복음은 아주 의미 심장한 책들이다. 그이유는 이두권의 책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보고져 하는 것과 정반대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범죄하여 넘어진 자를 다시금 회복 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르친것과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6:1).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계속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은사가 많은 목사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을때에 사탄에게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주님을 위한 일에 큰 능력과 재능을 받은 자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사탄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넘어진 주의 종들을 회복 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복될때에 그들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에서 넘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해왔다. 이것은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나는 모두 부서져 쓸모 없이 된것을 재생하여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나는 1957년에 제작된 호드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스카이라이너 라는 승용차가 하나 있었다. 내가 처음에 이차를 구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차를 보았다면 이것은 패차 처분 직전에 있는 고물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차를 아름다운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 차를 모두 분해해서 녹솔은 것을 갈고 딱고 페인트를 칠하여 다시 재조립을 하면 드디어 쓸모 없이 버려야될 고물차가 아주 아름다운 자동차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러한 일에 기쁨과 성취감이 있는 것이다. 나는 또한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를 좋아한다. 나의 딸은 항상 많이 고쳐야할 다 낡은 오래된 집을 구입한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산 집을 한번 봐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는 다낡은 오래된 집을 다시 수리하기를 좋아하며 그일이 끝난 뒤에는 그낡고 오래된 집이 아름답게 단장한 새로운 현대식의 집으로 변신 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사탄이 망치는 인생에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수 있는 것이다.

나는 쓸모없이 패인이된 인생들을 취하여 다시금 빚어서 재생하고 발전시켜 새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하는 것을 좋아한다. 갈보리채플의 대부분의 목사들을 보라 그들은 참으로 파선된 인생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쓸모있게 회복 시켰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인생들로부터 얼마나 부하고 가치있는 삶을 낳게 하신 것을 보라! 세상이 볼때에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아름답고 영광스런 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사역이다.

용서를 받은 자들은 용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다. 긍휼을 입은 자들은 긍휼을 배풀어 주어야 한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를 배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갈보리 채플의 목회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2절에 보면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중단하게 하였다. 한 여인의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 오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요한복음 8:3-4).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때에 모세를 도구로 사용 하셨음을 알고 있다.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었다.

만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수 없게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 19:9).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 나이까라고 묻고서 속으로 이제 예수를 함정에 빠지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태복음19:8).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서도 보면 그들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께 묻는 말이“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들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할것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복음 8:5-6). 이것은 예수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시도가너무나 확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몸을 꾸꾸려 마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 하였다.

지금 무슨 말을 땅에다 쓰셨을 까? 아마“남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 했었는지 모르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그런데 그들은 현장에서 남자는 잡지 못하고 여자만 잡아 온 것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둘다 들로 쳐 죽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참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남자도 그곳에 끌고 와야 했다. 그러나 아마 그 남자가 자기들의 친구인지 그 남자는 놓아주고 여인 잡아 왔으니 이것은 진실로 공의롭지 못하다.

예수의 원수들은 예수가 저들의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땅에다 글만 쓰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께 대답할 것을 재촉 하였다.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서시며 하시는 말씀이“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로 치라”(요한복음 8:7). 그리고 다시금 꾸꾸려 땅에다 글을 쓰셨다. 이번에는 무엇을 쓴 것을 내가 알겠다. 예수님이 그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서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나많은자 부터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많은 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많이 범죄한 사실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가 범죄한 내용을 자세하기 기로하기 시작 했을때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말하기를 “오늘 내 마누라가 집에 빨리 오라고 하는 말이 생각 나는군 자네들 내가 먼저 집에 가 봐야 겠어”라고 그는 떠나 버렸다. 예수는 계속하여 그다음 나이 많은 자의 죄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을때 그 사람도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들의 숨기운 죄상을 기록했을 때 모두가 돌을 땅에 떨어 터리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다떠나 버리고 한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John 8:10-11).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반응인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심한 자동차 사고 났을때에 차가 충돌하여 박살이 나고 사람의 몸이부딪쳐 상처가 나서 출혈이 심하여 길거리에 누워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두종류의 응급차가 그장면에 도착하게 된다. 첫 번에는 보통 순경차가 와서

안전지대를 조성하여 사람들과 차량의 접근을 못하도록 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일들을 한다. 그후에 사고난 차의 위치와 바퀴가 미끄러진 자국을 조사하여 그리며 증인들과의 인터뷰를 하여 증언을 기록하는 일들을 한다.

그들의 해야하는 일들은 누가 법을 어겼나 이러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구명 하는 것이다. 순경의 주된 관심은 누가 어떤 법을 어겨서 이러한 참사를 일으켰고 누가 잘못했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들째번의 응급차는 구호대원들이 탑승하여 도착한다. 이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길거리에 누워서 출혈하고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출혈을 멈추고 골절의 여부를 조사하고 심장 모니터를 부착하여 환자의 상태를 속히 파악하여 환자의 위기 여부를 확인하여 들것에 실어 엠블란스 태워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는 일들한다. 그들은 누가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구명하려 온 것이 아니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지금 두가지 종류의 일을 관찰 할 수 있다. 순경의 하는 일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자가 있다. 그들은 비극을 당한자와 께어진 인생에게 와서 하는 일이 법전 책을 꺼집어 내어 비극을 당한자들에게 율법을 읽어 주는 것이다. “비극을 당한 자들은 그말을 듣고만 있고 침묵을 지켜야할 권리가 있고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순경은 사고현장에서 법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실수이며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마치 구호대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법을 어겼으며 누가 실수를 하였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사람들이 어떻게 치료가 될수 있느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고칠까? 파괴된 인생을 어떻게 도와 줄까? 어떻게 이사람의 생활을 정상으로 돌릴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를 할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한 사실에 바리새인들은 법전을 가지고 나와서 따지는 자들이다. “우리의 법은 돌로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여인을 도와주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해주기를 원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 여인을 다시금 올바른 생활을 할수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상한 자들이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다시금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한은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다. 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라면은 나는 예수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회를 바라 볼때에 우리는 많은 자들이 근본적으로 모세율법의 수종자들임을 볼수 있다. 그들은 아주 율법주의 적이요 거칠다. 법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정확히 법이 무엇이라고 한말을 해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없는 자는 돌로 먼저 쳐라...나도 너를 정죄 아니 하노니”라고 말씀 하셨다.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은 많은 자들을 회복 시킬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특권이다. 나는 이사람들이 회복 되기전에 참된 회개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명확한 선명이다. 참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는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곳이 있다. 만일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기록하고 의롭고 선하다. 우리가 회개를 한뒤에 때로는 율법의 형벌을 자청하는때가 있다. 우리가 회복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항상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넘어진 자가 아시 일으킴을 받기 전에 있어야할 중요한 것은 회개의 필요성 이다.

산산이 찢어지고 멍들은 희망 없는 한 인생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시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수없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가지고 올 위험성도 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나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밖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죄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나중에 그대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곤 한다. 나도 완전치 못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여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진심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다.

나는 죄를 회개한줄 알고 한사람을 돕는 목회자로 교회에 채용하여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생활에서 회개치 아니한 죄성이 드러나 내가 실수 했음을 인정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마 미래에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내가 실수 한다면 판단을 잘못하여 실수 했다고보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편을 택하고 싶다.

에스겔 34장에서 주님은 멀리 떠나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한 목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 34:4).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이 내가 다른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행하는 것 보다 훨씬 관대하게 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는 커녕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 하는 것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4). 나는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판단을 잘못하여 실수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만일 실수를 한다면 은혜의 편에서 실수하는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는 것 보다 은혜를 베풀다가 실수할때에 나에게 더욱 은혜로 대하실 것이다. 나는 사람을 잘못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율법 주의에 빠지기란 아주 쉽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과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대개 ‘개혁신학’에 깊이 심취하는 가람 가운데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보통 율법 주의에 깊이 빠져있다. 그들은 T자는 교차로 I자는 점선으로 똑 바로 그려져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개혁신학’은 고슴도치에 좋은 점들이 있듯이 어떤 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꼭 얹으면 당신이 찢리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모나지 않게 얼버무려 해석한다고 느껴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을 고의적으로 모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보통 그러한 경우 두가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편이 생기고 분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 칠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로서 하나님의 절대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실제로 두가지 모두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 두가지가 상호 상반되는 것이다. 이문제를 가지고 분열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두가지를 함께 받아 들이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권을 극도로 주장하다 보면 사람의 책임이 제거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책임을 극도로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권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사람이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논리로 결론을 지으려 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 사람의 논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주장 해보면 논리적인 결론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권과 사람의 책임을 똑 바르게 나눌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둘다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해력으로는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발란스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어떻게 함께 공존 할수 있는지 이해 할수 없지만 나는 이 둘을 모두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으며 또한 나 역시 나에게 책임이 있으며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단지 이 성경의 두 교리가 진리임을 믿는 것이다.

요근래 어떤 목사가 칼빈니즘에 관한 작은 책자의 표지에 저율이 있었다. 그저율의 한쪽에는 요한 칼빈을 다른 한쪽에는 요한복음 3:16절을 엮어 놓았다.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 하겠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사람들로 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교인의 반수는 잃어 버렸다. 왜냐하면 대개 이러한 문제데 대해서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당신의 교회 교인들의 반을 잃은 셈이다.

당신이 참으로 당신의 교회의 교인 반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갈보리채플 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미덕을 아는가?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른다. 만일 당신이 침례교단에 속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서있는 것을 안다. 반수의 교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침례교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에다 장노교라는 간판을 부치면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 반수의 교인들이 결코 돌아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노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에다 나사렛 교단이라 붙이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세장에 집어넣어 쫓아 내어 버리고 만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게 된다.

갈보리체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소 신비로운 점이 있다. “이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모든 발이 우리것이다. 당신은 제일 큰 연못에서 고기를 낚을수 있다. 당신이 마케팅을 할 때에 할수있으면 가장 큰 마케팅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을 잘라 좁히지 말라 또 “우리는 이작은 마켈에서 고기를 낚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시장을 넓혀라 큰 연못에서 낚으라 생선이 잘 잡히는 곳에서 낚시질 하라.

제 6 장

말씀의 우선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디모데전서 4:13).

갈보리체플의 특징중에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노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그들이 에베소의 해변 지역인 밀레도 지방의 에에게 해의 바닷가에 뭍혔을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이 없음을 선언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사도행전 20:27).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다 전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할가?” 사람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언할수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말씀 창세기 부터 계시록 까지 모두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 만이 가능 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교인들에게 성경전체를 가르쳤다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제목설교만 한다면 성경전체를 가르칠수 없다. 제목설교를 한다는 것은 좋은점이 있지만 제목설교는 당신이 좋아하는 특수한 제목을 강조하여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에서 어떤 제목들은 별로 영감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크게 감동받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들을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할 부분 들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제목설교만 한다면 당신은 어려운 제목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제목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게된다. 이러할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균형있는 견해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계속하여 가르치는 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다”라고 말할수 있다.

갈보리체플 코스타메사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다” 라고 나는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곱 번을 반복하여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성경을 여덟 번째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도 빠지 않고 모두다 공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보리 체플교회는 특히 성공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경전체를 계통적으로 구구절절을 빠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갈보리 체플의 가르치는 형태가 강해설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목설교나 어떤 특수한 제목의 메시지를 가끔 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제목설교 잘못 됐거나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목설교의 좋은 점도 있다. 우리는 모든 설교를 놓고 이것이 설교학적으로나 강해설교적으로 바르게 하였는지 분석하는 극도의 율법주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침에 있어서 대부분 이사야의 가르침의 표본을 따라 가고져 추구 하는 바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13). 이 구절은 이사야가 가르치는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술한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을 비웃었으나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 이었다. 그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불평하여 조롱하는 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하사” 이라고 비웃는 말을 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않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모두다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계통적으로 가르치는 또 다른 이점은 교회 내에서나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룰때에 그문제를 단도 직립적으로 다룰수가 있다. 사람들이 “오늘 설교는 나에게 향하여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오늘의 말씀은 단지 성경의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상고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은 이제목 내일은 저 제목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경을 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계속해서 가르칠 따름인 것이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을때에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을 이른 아침에 한자리에 모아 놓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느헤미야 8:8).

이것이 강해설교의 잘표현된 정의 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느낌을 갖도록 한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나는 많은 경우에 특수한 구절을 오십번 내지 육십번 읽을때에 그 뜻을 포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좋은 주석을 사용하는 것도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계답음도 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계답음을 음미 해보고 다른 사람이 쓴 주석을 여러 페이지를 읽어도 나에게 많은 경우에 아무 사용 가치가 없음을 고백한다. 어떤 특수한 난해 구절을 놓고 일곱 주석을 펴고 읽고 연구 해보면 읽기 전보다 모두 읽은후에 더욱 큰 혼돈을 가져 오는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특수한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개념과 생각들을 제시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 자체라고 믿는다.

갈보리체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반적으로 하루 밤 사이에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미를 알게 될 때까지는 연마하는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지역에 갈보리체플 교회의 기초를 닦는 데 약 이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준비한 굴은 땅을 파고 흙을 부드럽게 하며 옥토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뿌린 씨가 밤사이에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씨가 자라고 발전하여 결국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목회의 이년 마지막에 그만두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할수있다. 목회자들이 위기에 봉착하게되고 대개 용기저하되어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갈보리체플의 운동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믿는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만두는 자들이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대개 이년후에 나에게 전화하여 여기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떠난다고 말한다. 그럴때에 나는

그들에게 유개월만 더 기다려 보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보라 당신이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땅도 파고 흙을 배양하고 씨도 심었는데 이제 열매가 나오는지 어디 기다리고 관찰해보라” 라고 격려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삼년째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8). 그러나 이러한 열매가 갑자기 하루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갈보리 채플 운동은 불이나 섬광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즉시 몰려들게 하여 많은 군중을 기대하고 온 자들에게는 아주 용기를 저하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몰여 기적을보고 불꽃놀이로 흥분적인 일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흥분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즉시로 일시적인 성공을 한것 같이 보이거나 거기에는 발전이나 성장 같은 것을 볼수없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 하신것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

7월 4일 독립 기념일에 하늘에 로켓트를 쏘아 가지 각색의 아름다운 섬광을 일으키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 “와” 소리를 지르며 감탄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동안만 지속한다. 이것은 즉시로 재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순간적인 하나의 섬광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모두이다. 이것이 많은 목회자 하고 있는 길이다. 단지 하나의 큰 섬광, 그것이 모두이다. 이것은 하늘에 무슨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인데 별과 같이 영원무궁 토록 발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쏜 로켓트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빛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즉시 사라지는 섬광을 원하는가?

제 7 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5)

갈보리 채플의 특징중의 하나는 우리의 경배가 예수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점으로 바라보는 일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어떤 일도 허용치 않는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를때에 한 개인이 일어서 있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한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그가 일어서 있을가?*” 이때에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서있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

흥미있는 일은 눈은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배중 많은 경우에 혼자 일어서 있는 자를 보면서 있는것 많으므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수 없으므로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끌게 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은 그광경을 보고 저사람이 왜 서서 손을 흔들고 있을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가 사람들의 주의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다루워야 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시간에 이런 행위를 허용하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보려고 하는 자들이 이상히 여겨 다시는 이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어떤 교회에 가서 이러한 광경을 본다면 목사님 설교는 좋으나 예배중에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교회에 교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한 갈보리 채플교회에 있을때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중에 개인적으로 일으서는 것을 허용했었다. 불행이도 한사람이 이러한 일을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통 그사람을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교회에 한사람이 저녁마다 집회에 나와서 앞좌석에 앉아서 일으서는 정도가 아니고 일으서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사람은 정신이 조금 실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그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사람은 자신이 공중 앞에서 하고 싶은 이상한 일들을 할 때에 허용되는 곳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주의력을 극도로 산만 시키는 것이었다. 내가 이사실을 목사에게 말을 하였더니 그목사는 이러한 일대에 대해 동조하며 그행동을 방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잠잠히 관찰하리라고 생각했다.

갈보리채플 코스타메사 교회에서 만일 집회때에 누가 일으서면 안내자가 그사람을 교회의 멘뒤에 인도하여 대리고 와서 부목사가 그사람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부목사는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이러한 행동은 예배드리려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주의력을 산만케 하므로 금한다고 말해준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의 주의력을 주 예수께로 부터 돌려 자신에게 이끄려고 하는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사람들의 주의력을 당신 자신들에게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결과로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초점을 잃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해준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부드럽게 권고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치 않고 화를 낸다면 이사람들의 행위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전부가 육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은 “오 내가 깨닫지 못했군요 미안 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육적인 사람임을 간주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Matthew 6:1).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태도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음을 말씀 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좋던 싫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만일 당신만이 일으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주의력을 당신에게로 집중 시킬 것이다.

내가 다른 갈보리 채플에 있을때에 여자들이 긴옷을 입고 바닛(Bonnet)모자를 쓰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가대의 찬양에 맞추어 몸으로 표현하는 춤추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 가장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 이상의 것은 없었다. 그들의 우아한 춤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그날밤 나에게 찬양으로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유익이 없었다. 이여인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관찰했고 그들이 노래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 쫓을 뿐이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후에 또다시 내가 그교회 담임목사에게 말을 하였다. 그목사는 그말기를 알아듣고 이러한 일이 주의를 산만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이후로 몸으로 표현하는 춤추는 것을 중단 하였다.

우리는 스위스의 베즐시에 있는 한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이 교회는 아마 유럽에 있는 가장 흥분되는 교회중에 하나였다. 앞으로 부흥 가능성과 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로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믿었다. 매년 나는 베를린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들은 갈보리 체플의 모든 비전을 포착하고 성도들의 찬양과 좋은 경배 그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주일 밤이면 수백명의 젊은 이들이 아름다운 고딕스타일의 교회당에 모여 들었다. 국영교회에서 그들에게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 했던 것이다. 국영교회는 주일 아침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여섯명의 노인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교회 감독이 갈보리체플이 주일밤에 장소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곳은 난간까지 사람이 꼭 차있었고 생동하는 사역으로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커피샴도 열고 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히피와 마약 중독된 젊은이들을 다루고 있었다. 교회는 마약소굴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예수민고 구원언은 젊은이들이 거처할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했던 것이다. 교회는 그곳의 특유한 기념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경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이 고용되어 거기서 일하고 그들이 그림의 예술에 재능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또하나의 이점이었다.

지난번 내가 갔을때에 두여자가 러어타드를 입고 몸으로 표현하는 춤을 추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순절 계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목사를 초빙하여 그들은 춤추는 일에 관련하고 있었다. 담임목사가 강하지 못해서 이문제를 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배후에 나는 담임목사에게 춤추는 일을 즉시 중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예배의 몸임을 주관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설교하기 전에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을 때 이여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의 귀에 무엇이라 속삭이더니 노래를 한번더 부르게하고 또 한번 춤을 추는 것이다. 예배의 몸임이 춤추는 여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담임목사에게 말을 하였으나 그는 이문제를 다루기를 원치 않았다. 그결과로 오늘날 베를린에는 교회가 없다. 담임목사는 떠나고 오순절파가 교회를 주장하고 있을때 교회는 그들을 추방하고 지금은 그곳에 교회의 사역이 끊어지고 말았다.

예수그리스도가 교회가 추구하는 초점의 중심이 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그이외의 것들은 최소화 해야 하며 만일 예수님께 향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나타날때에 이것을 반드시 다루워 배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여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대학을 다닐때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사람은 항상 앞줄에 앉아서 대개 예배중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감동적인 순간에 그는 몸을 바닥으로 향하여 앞으로 꾸꾸리고 그리고 일어서서 두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럴때에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한다. 이러한 순간 모든 사람의 초점이 할렐루야라고 고함을 치는 이괴상한 친구에게 집중된다. 설교의 중점이 상실되고 말았다. 그는 그의 행동 때문에 많은 설교가 파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중지 시켜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나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의 바로 뒷줄에 앉아서 그가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려고 앞으로 몸을 꾸꾸릴때에 나는 그의 어깨를 꼭잡고 신경을 꼬집으면서 그를 끌어 앉도록 꼭 붙들었다. 아무도 그를 중지시킬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러한 행동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년전에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수양회에 참석 했을때에 앞줄에 일간이 같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사람 얼굴만 보아도 그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였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경배를 하고 있을때에 이사람은 교회의 복도를 아래 위로 뛰어 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담임 목사에게 “왜이러한 일을 허용하는가?”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저들은 자유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하기를 “여보시오 저것이 자유가 아니다. 만일 내가 당신 교회에 손님으로 처음 왔을때에 이사람이 행하는 광경을 본다면 나는 다시 이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며 이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중지 시킬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일을 한다고 지탄 받는 일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종류의 영감은 소멸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산만케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끌고져 추구하는 영감은 소멸 되어야 한다.

과거에(이것이 갈보리교회에서 오래계속된 것은 아니다)예배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 이럴때 마다 안내자가 가서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여 부목사들이 그들에게 갈보리체플에서는 오순절파나 은사파(Charasmatics)에서와 같이 예배 도중에 공중 앞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나는 강단에서 방언의 은사는 신약에서 허용하는 은사임을 설명하고 방언에 대한 적절한 위치를 회중에게 잘 설명한다. 나는 바울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가 교회에서 가르칠때에 일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마디의 말이 더 낫다고 말한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함을 하나님께 감사 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배에서 방언은 자신에게 큰 덕을 세운다고 했다.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갈보리체플 같은 크기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는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특수한 방언의 은사는 통변을 겸한다 할지라도 갈보리체플교회와 같은 큰 모임의 예배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편리하게 활용할수 없는 환경이므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예배시에 방언을 허락치 않는다. 그러나 방언을 개인적인 기도과 경배에서 이은사를 사용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믿는자의 모임의 그룹이 있다면 모여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때에 통변을 겸한 방언의 은사는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 믿지 않는자가 있다면 그사람에게 방언으로 인하여 혼동과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교회에서 저녁예배후에 후광(Afterglow)집회를 하는 것과 같이 특히 믿는 자들에 국한하여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통변을 겸한 방언이 덕을 세우고 허용된다. 성도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찾으며 성령의 충만이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방언은사의 사용이 허용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심각한 행동임을 깨닫고 있는지 어떨때는 의심 스러울 정도이다.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려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거역하는 일이다. 나는 결코 이러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구약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한 흥미있는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모두 안치 한다음 그들이 모두 함께 뭉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뭉치고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모두 봉사하고 있을때에 아론은 그의 긴 제사장 옷을 입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뭉쳐서 제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제단위에 있는 제물에 붙어 불붙기 시작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점화되어 붙는 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보고 놀라 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인지 할 때에 사방에서 흘러나는 큰 흥분과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때에 아론이 두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답이요 다른 하나는 아비후였다. 이두 아들이 자기의 향로에다 이상한 불을 땀겨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일에 쓰려고 했던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버렸다고 했다.(레위기 10장).

나는 믿기를 그들이 순간적인 흥분과 감정에 사로 잡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을때에 그들은 불에 타죽고 말았다.

나는 이상한 불에 대해서 아주 의심스럽다. 당신도 이상한 불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로 주의를 돌리기 보다 쓰임 받는 도구에게 주의를 끌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사뻘라에게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또다시 한 개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져 하는 시도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사뻘라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일부를 교회에 바친대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것처럼 교회에 보고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보시오 자기의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행한 행동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일부는 바치고 다른부분은 숨겨 두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와같은 칭찬과 영광 받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육의 사람은 아주 부패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 받기를 원한다. 나의 육적인 사람은 내가 실제보다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아 주기를 원한다.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려고 애쓴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저주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목사들은 영적인 면이 없는 데도 깊은 영적인 사람인 것 처럼 인상을 심어주려고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목소리부터 아주 거룩하게 발성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손을 특별한 모양으로 모으고 말하기를 “오, 사랑하는 여형제여 나에게 모두 다 말하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며 그들의 행동은 거룩한 사람으로써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이 여러시간을 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큰 결단력이 필요 하지요”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 빠지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아나니아와 사페라의 경우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심한 죽음이라는 값을 치렀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신다. 조심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일이 없도록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주의력에 중심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경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초점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제 8 장

교회의 휴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13)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경고 없이 공중에 오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그의 진노를 쏟아 놓으신다. 많은 목사들이 휴거에 대한 무식을 스스로 폭로 하든지 아니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일으날 것인지를 확실히 잘 모른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자신의 태도를 표명한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상고하여 휴거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가질수 있다. 나는 당신이 휴거를 믿는 견해가 당신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맨처음,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라고 약속 하신 것을 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영접 할 것을 약속 하시고 또 그가 계신 곳에 우리들도 가서 있게 될 것을 약속 하셨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린도전서 15:51). 라고 선언했다.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과 그의 목적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계시함에 있어서 아직 나타내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골로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세 1:27).라고 말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깊은 뜻을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했다고 했다 (베드로전서 1:12). 고린도 전서 15:51절의 말씀에서 이전에 계시되지 않았던 다른 진리를 우리들에게 소개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성경이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란 말씀은 헬라말에 Metamorphosis란 말인데 근본적으로 원형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예: 나방의 유충이 나비가 되는 것).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전 15:53).

주님이 그의 교회를 대리러 오실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제목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울은 그곳에 한 이주간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짧은 기간중에 그는 그들에게 많은 교리들을 가르쳤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올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시대마다 그들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곧 오신다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령한 계획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 하시기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46).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왕국을 즉시로 설립 하실것이라고 믿었다. 사도행전 일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사도행전 1:6).

“주님의 왕국을 건설함이 몇일 남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의 왕국을 곧 설립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흥분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 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7-8).

초대 교회때에 예수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문 들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감기가 걸리거나 목아픈 일이 생기면 은교회가 흥분하곤 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해명을 하여 기록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 하셨을때 베드로는 전형적인 그의 태도로써 묻기를 그러면 주님 이사람(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22).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손 치더라도”라고 가상의 말씀을 하신것이라는 요점에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기전에 오시겠다는 잘못된 관념을 교정했던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죽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왕국을 설립 하실때에 죽은 형제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이 오셔서 설립한 영광의 왕국에 참여 못한다는 잘못된 관념을 교정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전서 4:13).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4:14-15). 바울도 아마 그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까지 남아있지 않게나 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성도들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16-18).

어떤 사람들은 “나는 휴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휴거란 단어를 발견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 4:17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caught up)란 한국어 번역인 헬라 원어는 'Harpazo'란 말인데 그뜻이 '강제로 취해간다'라는 말이다. 이 단어는 보통 군대에서 사람을 강제로 인질로 잡아가는 군대 용어인 것이다. 라틴 말로 번역된

별게이트성경(Vulgate)에서는 'harpazo'를 'raptuse'로써 번역 되어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rapture'가 파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교회를 강제로 취해 가신다 라는 뜻이다. 이것이 첫번 사건이다.

둘째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때에 주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 오셔서 이땅위에 그의 왕국을 설립 하실 것이다. 그래서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구별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7).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로세 3:4). 예수님의 재림이 이땅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교회가 휴거되어 주님께로 공중에 끌어 올려 가는 사건이 먼저 있겠다. 이사건에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살노니가 4:17).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과 교회와 함께 오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휴거때는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만 그의 재림때는 교회와 함께 오신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그의 재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로세 3:4).

유다서 14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유다서 1:14). 스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스가랴 14:4-5).

휴거는 어떤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휴거가 일어나기전에 성취되어야할 아무 예언도 없다. 휴거가 당신이 이장을 다읽기 전에 일어날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예수님의 재림전에 성취 되어야할 예언들이 있다. 그것은 먼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땅은 대환란과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이 예언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재림전에 있을 표적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28).

지난해의 10월 마지막 할로윈(미국에 사탄의 날, Trick or Treat)의 바로 전쯤 되었을때 나는 남가주의 제일큰 백화점을 지나갈때에 산타클로스와 사슴과 그의 다른 크리스마스 장식을 진렬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아직 10월달이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저것을 보라 그들이 벌써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하고 있군! 정말 그렇구만! 그러나 나는 감사절이 좋아!” 라고 나의 아내가 대답했다. “저것들은 감사일 장식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닌가”라고 말했을 때 나의 아내는 말하기를 “나도 감사절이 크리스마스 전에 온다는 것을 알아요,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본다면 감사절은 더욱 가깝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라고 했다. 같은 이치에서 우리가 예수 재림의 증표를 본다면 휴거는 그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에 있을 중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 했을때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태복음 24:3).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닐고 계실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큰 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2). 그들이 감람산에 이르렀을때에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3). 그래서 그들은 징조중에 한가지만 물은 것이 아니고 성전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인간 정부의 마지막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실릴 왕국에 대해서 질문 했던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물어 보지도 않았고 아마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파괴의 징조와 그의 다시오심에 대한 징조를 말씀 하셨다. 주님이 자신의 재림의 징조 대해서 말씀 하실때에 자연스럽게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경고 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편저” (마태복음 24:15). 너희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서 나와 광야로 도망해야 할 때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태복음 24:29-30).

예수님의 재림전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예언들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 동안에 큰 권세를 가진 사탄의 왕국이 먼저 설립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반드시 일어 나야만 한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 전에는 일어날 예언은 없다. 바로 그이유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마태복음 24:44, 4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다. 각 비유의 요점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조심하고 준비하라. 각 비유마다 지적인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의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은 처녀였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읽을수있다.(마태복음 25:2).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10-13).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깨어있어 예비하고 있으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오실런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42-44 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나는 확실히 믿기를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는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36).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두말할 것 없이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주님, 이땅위에 장차 닥아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대환란때에 일으날 일들이다.

우리는 계시록 1:19에서 이책이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 입장에서는 요한에게 네가 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그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한 그의 오른손에 일곱별을 쥐고 계시는 것을 보고 기록하였다. 요한은 영화롭게된 상태에 계시는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기술하여 기록했다.

2 장과 3 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멧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곱교회를 말한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교회역사의 일곱 기간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오늘날 당신이 볼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 이라고도 믿는다.

오늘날 첫사랑을 떠난 교회들도 있다. 또한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수단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는 교리를 가진 교회들도 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신교를 묘사하는 사테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있다. “사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1).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교회도 있다고 믿는다. 이교회는 큰 능력은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불지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계시록 3:8). 우리가 비록 크지는 않고 땅을 진동할만한 능력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두는 교회도 있다고 믿는다. 주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시록 3:20).

나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메세지의 내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믿는다.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메세지를 마치신 다음에 새로운 장을 헬라말로 ‘메타타우타’(metatauta)란 말로 시작하며 뜻이 “이일후에”란 말이다. 이말씀을 계시록 1:19 절에서도 반복하여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무슨일 후에”란 뜻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사건 이후에라는 뜻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사건은 교회의 일이다. 우리가 읽은 교회에 관한 일이 끝난후에란 뜻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1).

이 명령이 내린후에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시록 4:2). 요한은 녹색무지개가 보좌위에 펼쳐져있고 보좌 주위에 그룹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 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24 장노들이 작은 보좌에 앉아서 그룹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질과 특성과 거룩 하심을 선언하며 하늘에서 경배하는 것을 지켜보는 광경을 보았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시록 4:8).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 할 때에 스물네 장노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금 면류관을 그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 드리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11).

그때에 요한은 안팎으로 기록한 일곱 인봉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주의를 끌게 되었다. 또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계시록 5:2).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시록 5:4). 나는 이 두루마리 책은 유대의 구속법에 따라 본다면 지구의 권리 증서라고 믿는다. 유대인이 재산을 잃었거나 차압 되었을때에 그 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권리증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결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밭을 구입하여 구속하는 사건에서 잘 설명 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루고 세상을 구속하는 것과 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본다.

다시 하늘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정한 기한안에 그재산을 구속하지 못하면 그것은 새로운 주인에게 영원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당신에게 한번의 기회가 주워지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영원히 다른 새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이세상이 정한 기간에 구속되지 아니하면 사탄의 권세와 지배 아래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생각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한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요한이 심히 울었던 것이다. 그때에 그 장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시록 5:5). 요한이 볼때에 유대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듯한 한 어린양이 서 있었다. 이사가야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2, 5).

계시록 5장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계시록 5:7-10).

노래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면 교회만이 이노래를 부를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구 소유권 문서를 받을때에 우리도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 손에서 우리주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늘에서 노래하는 영광스런 찬양대와 합세하여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시록 5:9).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세상의 끝이 오기전에 선행할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또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1:36).라고 말씀 하셨다.

이땅 위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을때 나는 하늘에서 인자 앞에서서 어린양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있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회만이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를수 있다.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본다면 5장에서 교회가 구속의 노래를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 책을 여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땅 위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교회의 찬양이 선행 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계시록 5:9-10).

교회가 인자 앞에 서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지적하여 말씀 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1:36). 나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계시록 6장은 대환란을 묘사한 것으로 시작된다. 주님께서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떼실 때 마다 그에 따른 심판이 이 땅위에 내리게 된다. 첫 번 인봉을 뽀때에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2). 나는 이것은 다름아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흰 말을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도 있다. 그러나 본문을 잘 검토 해보면 그의 출현후에 전쟁과 기근과 피흘림과 지구상의 인구 사분의 일이 죽는 일이 따른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따르는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영광스럽게 오시는 일 같지는 않다. 그럼으로 나는 이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나는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세력이 오늘날 이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의 존재인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받은 능력이 많지는 않고 적지만 흑암의 세력이 이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교회가 이세상에서 완전히 옮기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 할수 없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데살로니가후서 2:7-8). 이러한 사건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 되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때 교회는 이미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하나씩 떼실 때 마다 그에 따른 심판이 이땅위에 내려 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땅위에 쏟아지는 때이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로마서 5:9). 바울은 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9절에서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 곧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하심에 참여 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로마서1:18).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단지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 5:18).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33).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신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환란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탄이 환란의 근원인 것이다.

사탄이 환란의 근원일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꺾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란의 근원이 될 때는 이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심판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던 천사들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방문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까?” 그들은 말하기를 “왜 아니되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소돔성의 죄가 하늘에 사문쳐서 그 실상을 조사 해보고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는 도중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그말을 듣고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 시킬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만일 그 도성에 의인 오십명이 있다면 그 의인 오십명으로 인하여 그성을 멸망 시키지 않고 남겨 두겠습니까? 그럴때에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기를 ‘만일 소돔성안에 의인이 오십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오십명을 인하여 그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리라’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다시 질문하기를 ‘만일 그성안에 의인 오십에서 다섯 사람이 적다면 멸망 시키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내가 만일 사십오인을 발견 한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만일 사십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십명을 인하여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삼십명은 요’ ‘내가 삼십명을 인하여 멸망 시키지 않겠다’ ‘이십명은 요’ ‘내가 이십명을 인하여 멸망 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만일 의인 열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열명을 인하여 그 도성을 멸망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다.(창세기 18:23-33).

무슨 일이 났는가? 천사가 소돔성에 왔을 때 그들은 그성문 옆에 앉아 있는 의인 한사람 곧 롯을 발견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어떠한음을 잘알고 있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베드로후서 2:7).란 말씀이 있다. 롯은 이분들이 천사인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청 하였다. 그날밤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세기 19:5).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강간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롯은 대답하기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Genesis 19:7).라고 간청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대문을 계속 두드릴때에 천사들이 롯을 잡아 땡겨뒤로 돌리고 천사들이 그 무리들을 쳐서 장님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문을 찾으려고 계속 애를 썼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이튿날 아침에는 천사들이 실제로 롯을 소돔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롯이 밖으로 나갈 때 까지는 그성을 멸망 시킬수 없었기 때문이다.

롯은 구원받을 교회의 모형이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베드로후서2:7-9).라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 까지 지키신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땅의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공정하시고 악인들이 의인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심판에서 먼저 구하신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함으로 홍수로 심판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5).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 가운데 의로운 한사람 노아가 있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때에 노아를 보호하시고 그를 숨겨 두었다. 마치 계시록 7장에서 144,000명의 성도들을 인치시고 대환란의 심판에서 해를 입지 않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치시고 홍수의 심판에 안전하게 보전하여 구원하신 것과 같다. 노아는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때에 해를 입지 않고 구원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의 모형이다.

같은 시대에 다른 한 의인인 에녹이 있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24). 에녹은 다른곳으로 옮겨 졌던지 아니면 휴거 한 것이다.

나는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 갈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말하면서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 갈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의 논쟁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가지고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51-52).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여기에다 결부 시켜서 일곱째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한다. 휴거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나팔을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나팔의 마지막 나팔로써 증명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나는 여기에서 한 두가지 문제가 있음을 볼수 있다. 첫째는 일곱나팔 심판은 일곱 천사들에게 그나팔을 불게하여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때마다 동시에 심판이 이땅위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나팔을 누가 부는가를 조사해 보면 그들은 모두천사들인 것이다. 데살로니가 4:16절에 보면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4:16). 휴거의 나팔은 한 천사의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인 것이다!

넷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때에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계시록 8:13).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도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니” (계시록 9:12). 땅위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선언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휴거는 화가 아니라 영광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논쟁은 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여러가지 무리를 본 것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4절에서 시작하여 읽어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4-5). 그들이 지적하는 요점은 첫째 부활때에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 며 순교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잘 읽어보면 4절에서 우리는 보좌들을 볼수있는데 그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있다. 이 보좌에는 이긴자들이 앉아 있는데 사데교회에게 주신 멧세지에 이긴자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같이 하리라” (계시록 3:21). 요한은 교회가 첫째 부활한 자들의 한부분으로 본다. 그때에 요한은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을 또한 본다. 이들은 7장에서 장노들이 말한 큰 무리이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13-14).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밤낮으로 계속하여 섬기고 있음을 주시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5). 이 들께 무리들은 대환란 기간동안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도 왕국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휴거했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로 통해서 하늘 나라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계시록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0:7). 천사가 소리 내는 ‘날들’이 복수인 날들로 되어있다.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과 관련을 시킬수 없다.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은 나팔을 불때에 여러날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때는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29-31). 우리는 환난날 이후 즉시 예수께서 온세상에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

그때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란 말씀에서 “이택하신 자들이 교회가 아닌가?” 에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또한 택하심을 받았다. 구약 성경의 몇군데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을 보면 같은 말씀을 선언 하였다. 하나님께서 온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다. 이구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의 택하셨다는 뜻이 유대나라 이며 교회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사야 11:12). 이스라엘이 다시금 모이게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성경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니엘 7:21절에 “내가 본즉 이 빨(적 그리스도)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리고 계시록 13:7에서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적 그리스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것은 유대인 성도이며 교회가 아니다.

나는 교회가 이땅 위에서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볼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활약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땅 위에서 권세를 받아 활약하는 적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는 믿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죄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데살로니가 2:6-8).

나는 교회가 이땅위에 있는 동안 적 그리스도가 이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통치 하리라 믿지 않는다. 나는 교회안에 계시는 성령이 현재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 하려는 흑암의 세력을 막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교회가 이땅 위에서 떠난 후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흑암의 세력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막는 자가 떠날 때 까지는 막는 일을 계속할 것이나 막는자가 떠난 후에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적 그리스도를 보리라 믿지 않는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보기 보다 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사탄이 조작한 미묘한 속임수인 것이다.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혼돈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끝을 내셨다”라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대치 시켜서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믿는다. 그들은 나라로써 이스라엘을 언급한 예언들을 취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 시킨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모든 예언의 묘사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일 해가 오늘 아침에 뜬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도 계속 유지 되는 것이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한 이스라엘과 맺은 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글을 내신 것이 아니다. 호세아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가서 그여인을 다시 데리고와 싶어 깨끗하게 하여 그녀를 취하라” 다니엘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7년이라는 기간동안 이스라엘과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직접 다루신다.

구약 성경에서 휴거의 모형을 발견 할수 있다. 예녹이 홍수의 심판전에 옮겨진 교회의 모형이다. 느부갓네살왕이 거대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기에 절하게 하였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안에 지은 신상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 하도록 요구하는 신상의 모형이라 믿는다. 느부갓네살왕이 나팔을 불때에 큰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팔을 불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신상에 절을 하였다. 갈테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히브리 소년들이 나팔을 불때에 절하지 않고 서만 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왕은 세 히브리 소년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듣자하니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냐고? 내가 한번 더 기회를 줄터인데 만일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줄 알아라”라고 했다. 그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6-18). 나는 그러한 담대함을 좋아한다. 나는 그러한 자들의 기개를 꺾지 않는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이 크게나서 대밭노밭하여 명하기를 풀무불을 전보다 칠배나 더 떠겁게하여라 라고 명했다. 그 세 소년들을 풀무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 가까이 가서 넣은 자들이 불에 타 죽었다. 그런데 갈테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를 묶었던 끈만 타 버렸다. 느부갓네살왕이 묻기를 몇 사람을 불에 넣었느냐? 라고 할 때에 대답하기를 “왕이여 세사람 입니다”라고 대답 했을 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네사람을 보느냐?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견고 있지 않는가!. 넷째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했다.

그들이 나왔을때에 머리 한카락도 타지가 않았다.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 하셨도다. 왕은 말하기를 풀무불에서 구원할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프고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땅위에 없다”고 선언하고 찬양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때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니엘이 그 신상에게 절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과는 다르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실을 기억해 보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에 뜻을 정한 사람이 우상신에게 절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다니엘이 아마 나라의 일을 위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지방에 가 있었는지 모른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간에 우상신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때에 그곳에서 옮겨진 교회의 모형이다. 우리 곧 교회는 다른곳에서 곧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환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함께 심판 하심은 의로운 일도 아니요 일률성이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5).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 하시고 악인들을 홍수로써 심판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경건치 않는 세상을 향해 심판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6). 하나님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후서 2:7-9).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나는 구약성경의 롯, 노아, 예녹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모형을 통해서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임을 볼수 있다. 성경은 평범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9).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18).--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세대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을 믿을때에 세가지 유의된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긴박감을 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것”이 필요하다. (히브리 12:1).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일을 속히 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급박감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계가 모두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의 물질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9).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축복을 주신다면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그물질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의 생활을 하게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계를 속히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한번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고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을 깨닫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이유로써는 예수님께서 각 세대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도록 원하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결을 유지 하기 위함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46).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음화나 금지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다. 상상해보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 생활을 순결하게 보존할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수도 있는 것이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46).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2-3). 이것은 우리에게 순결케 하는 소망을 준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압박함을 타협치 않고 그대로 믿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오셔서 나를 끌어 올려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36). 이것이 나의 기도요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흥분되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곧 일어날 것이다. 각 세대마다 교회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대리는 소망이 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 오게하는 접화가 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부흥을 일러키게하는 잠화가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아주 마지막때에 살고 있다. 바울이 말한것과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13:11).

비읍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소망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고 다음과 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워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1).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생활을 해야 겠다 는 긴박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 2). 우리를 쉽게 얽메이게 하고 후퇴케하는 세상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게하여 무엇이 우선권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 3). 그들이 깨끗한 생활을 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 4). 주님이 언제든지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기원 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때에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만날 준비를 하기 원한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거나 후퇴케 하는 어떤일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의 휴거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성도 자신들을 조심하게 하여 이러한 소망을 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오늘날 이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날이 곧 온다는 진리에 초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곧 오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러 오실 것이다.

제 9 장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5-6

갈보리 채플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모든 새롭고 큰 운동은 성령에 의해서 태동된 것이다. 우리가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운동을 조사해보면 그것들이 모두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운동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육적인 것에서 완성해 보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을 볼 수 있다. 한때는 성령으로 시작한 생동력있는 운동이 죽은 의식주의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의식주의는 판에 박힌일에 지나지 않는다. 판에 박힌일과 무덤의 유일한 차이는 길이와 깊이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죽은 시체에다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하게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교회의 전체적인 목적이 기존하는 운동이 좌절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같이 보인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스스로가 생존하지 못할때에 가장 자비로운 처사는 그프로그램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배신의 계속적인 순환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그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는 사건을 읽을때에 그의 질력이 날 정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속박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약 사십년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시고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럴때에 일들이 한동안 잘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히어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이 잘될때에 등한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일이 잘 안되고 어려운 자리에 빠질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가 사사기를 읽을 때 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뒤집힌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수 있단 말인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없느냐?” “똑같은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사를 볼때에 나는 그의 대부분 비슷한 일을 본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실때에 성령으로 시작하신다. 여기에 흥분과 부흥이 따른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존 웨슬레 그리고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을 쓰셨을때 현대에 일어난 몇몇 하나님의 하신일을 생각해보라.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음이 그들의 생활에서 나타났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나 루터파 교회를 조사해보면 몇가지를 제외하고 현대주의에 묶이여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성령의 대결핍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반복 되는 것이다. 갈보리 채플은 이순환의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 하셨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가라에게 말씀 하신것과 같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라 4:6).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라고 말하고 책망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3).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지도자가 그들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할때까지 무척 오랜기간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들을 관찰해 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모세가 한 예다. 당신은 불붙는 떨기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처음에는 부르심에 거부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11).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관대 그러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사십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상상하건데 모세는 자기의 남은 여생을 양이나 치는 단순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의 남은 평생을 양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때에 그는 반응하기를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 만만하게 시작 하였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꺾어 놓으셨다. 한때는 모세가 민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숙명이라는 느낌을 가진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흥미있는 일이다. 스테반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인도자로 택하였음을 이해 하고 있었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의 기회가 올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사도행전 7장). 이것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과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육신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애굽 사람도 성공적으로 매장 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 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우리의 대부분이 모세의 경험에 결부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서 부르시는 일로 느끼는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시작한다. 많은 경우에 육신적으로 시작한일이 성공치 모사함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자주 사막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때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된다. 그이유는 자기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던 일을 육신적인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썼기 때문이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무를 맡겨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 그는 광야에서 사십년간 지나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기간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의 유능한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보잘 것 없음을 알았고 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모세의 반대의 말에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애굽기 3:12). 이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런 말씀인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1).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나는 그들에게 신용을 얻지못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세의 반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기를 “네손에 무엇이 있느냐?”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연속적인 일련의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신시켰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나는 능력이 없고 말에 능력이 없고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말재주 없음을 놓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말할수 있는 능력을 주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있게 하실수 있다. 태초에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이직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택하시어 나는 이일을 할 소원도 없고 나는 이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말할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출애굽기 4: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고 다른 방도로써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셨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마다하고 최상이 아닌 그다음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그의 허락하신 뜻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한다면 가장높은 단계에 우리를 올리시고 그 단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려 하심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높은 단계보다 우리가 세운 단계로 하나님께 강요 하는때가 많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낮은 단계로 저하케하는 일에 하나님을 타협토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사람은 자신감도 없고 신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을 택하시어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이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신들을 섬기기 시작 하였을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겐 불치했다. 미디안 족속들은 메뚜기때와 같이 그 땅을 덮었고 추수때가 되면 그들이 와서 그수확을 탈취 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속박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숨어서 포도즙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을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할 때에 기드온의 반응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Judges 6:14-15).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할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자신이 없을때에 우리는 이일을 성취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때에 내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대학을 갔다. 내가 상급반의 학생회 회장이 되었고 학생전체의 회장이 되었고 내가 학교의 체육부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발전 시켰다. 나는 내자신이 상당한 재질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였다. 내가 목회를 시작 하였을 때 내가 어디에서든지 성공적인 교회를 설립할수 있는 모든 자질과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 하였다.

나는 내자신이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17년이라는 세월을 성공없이 악전 고투하게 하셨다. 내가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부양 해야 함으로 세상의 직업을 갖어야만 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있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목회를 포기했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목회를 떠나 보려고 두 번이나 시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로 나를 끌어 들였다. 이것은 모두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 했던 탓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힘으로 할수없다는 것을 깨달을때 까지 나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기간동안 실패를 맛보게 허락 하셨다. 그후에 나는 단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에게만 의존 하였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관찰할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일에 대한 영광을 가로 채려는 유혹에 빠지지않았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와서 내 자신과 나의 야망을 다 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 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는 일이 나에게 말할수 없는 기쁨과 전율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많은 때에 자신을 비우는 필요성이 있다. 기드온이 주님께 대답 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15). 라고 말함은 자신이 자격 미달인 것을 나타내는 것 보다 오히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임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승리를 할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 미디안 사람들이 패배하고 다 흩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22-2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에 뭉치게 한 사람들을 바라볼때에 모두가 고뇌에 빠져있고 빛을지고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뭉였고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 그들은 불만에 가득차 있고 실패한 무리들로써 그수가 약 4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능력있는 군대로 만드셨다.

내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뭉아주신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을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마치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사회에서 버림당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때에 그가 반응하기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예레미야 1:6). 라도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뽑으셨을때에 어부들이나 세리를 뽑았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에 가서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훌륭한 학생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갈보리 쟁쟁이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첫 번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고도 조금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사용 하실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좋은 점이나 있어서 사용하는줄을 착각하고 그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적인 것에서 완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 할 때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26).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바라볼때에 그렇게 자격있는 자들이 아님을 관찰할수있었다.-현명한 사람도 많지 않고 육신적으로 볼때에 능력있고 고상한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계속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린도전서 1:27-28).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9절에서 그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 하시고 계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기쁨 부으시고 역사케 하신다. 그리하여 놀라운 결과가 나올때에 세상이 놀라고 경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영광을 가로 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누가는 우리에게 10장에서 언급하기를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흥분하며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서로 말하고 있을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계셨다.그리고 말씀 하시기를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옹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21).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주 육신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갈보리채플 목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다시 간 자들도 있다. 어떤 학교는 그의 목회가 아주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열광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고 학교의 당국자들은 자기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밟은 후에 학위를 주워서 목회의 성공과 관련을 맺기를 원했다. 학교 당국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일기를 애썼고 그들에게 생활에서 성공의 경험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주겠다고 제안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몇 과정을 밟게하고 모든 생활에서 얻은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들은 이러한 학위를 얻기 위해 학교에 입학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터뷰를 할 때에 항상 질문하는 말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나?” 물으면 “아무 학위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란 좀 쑥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무슨 신학교를 다녔느냐?” “아무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학을 졸업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아무 교육적인 배경이 없는 것을 인정하기란 당황하게 할 수 있다. "Who's Who" (“누가 누구인가”란 유명인사 등록책)의 회사에서 당신의 이름이 금년의 인명록에 기재되도록 선택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학위를 받았으며 무슨 대학을 졸업했는지를 물을때에 이사람은 어떤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보라 이사람은 이러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수 있기를 원한다. 여하튼 우리는 육신적으로 끝을 내려고 심지어 육신적으로 준비까지 하려고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계속해서 성공하는 길은 성령으로 계속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11:25 에서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있게 되어 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로부터 자신을 실격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진리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심을 기뻐했던 것이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할때에 적군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다.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적어도 135,000이나 되었고 기드온은 첫번 징병 모집에 응한자들이 단지 32,000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좃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2).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은 32,000명 가지고 할수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신일에 대한 영광을 받기를원하신다. 그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쓰시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그일을 보고 단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이해는 아니되나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그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그들을 사용하시구나”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얼마나 많은 때에 단순한 사람을 찾지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 일이 방해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사들로만 가득하다.

이제 나는 반 지적인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갈보리채플 까지도 반 지적인 것으로 자주 낙인이 찍히고 있다. 나는 이일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일지 모르나 나는 그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교육을 믿는다. 나 자신의 생애는 학구에 전념을 해왔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는 도구를 준비 시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인간적인 자연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다. 참된 교육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 하심이다.

제자들이 종교적 공회앞에 섰을때에 공회는 제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대해서 놀랐던 것이다. 그들이 관찰한 바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목회와 주를 봉사하는 일에 준비 해야할 전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년제 신학교를 이수할 필요도 없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축복보다 더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박사’란 타이틀이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큰벽을 이룬다고 나는 믿는다. 사람들을 목회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효과를 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박사님’이라 부르는 순간 당신을 높은 자리에 놓게 되는 것이다. 그럴때에 당신은 그사람들 보다 자신을 높은 위치에 놓게되고 그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는 실제로 그들을 잘 이해하는 위치에서 그들을 목회 할수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일년에 한번씩 매년 목회자 뭉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 계획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내가 라울 리스, 마의 맥킨타쉬, 그렉 로리, 스킵 하이제 그리고 다른 몇 목사들을 소집하여 뭉임을 갖는다. 뭉임후에 라울과 마의목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이라 모든 다른 목사들이 ‘박사님’하고 그들의 타이틀에 대해서 놀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울 리스 박사님’ 그리고 ‘마의 맥킨타쉬 박사님’ 이라 부르며 악의 없는 농담으로 그들을 당화하게 만든다. 그중에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만 받았다면 교회를 잘 운영할수 있는 크기로 감소 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전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완성을 시도한다면 하나님의 하신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저하는 일을 당신은 단지 방해할 다름이다. 오직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계속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계속하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인 라울이 아직도 라울이요 마의이 아직도 마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예레미야 9:23-24). 이것만이 가치있는 일이며 또한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수있는 길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9:24).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격이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사 세상을 놀라게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것인데 오히려 우리속에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그 좋은점을 발견해 보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기록하여 말하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7).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것 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가?

제 10 장

사랑이 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

사랑이 없이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무의미 하며 가치가 없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1).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충만이나

성령세계의 일차적인 증세로써 방언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같은 사람이 사랑이 없이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핑가리나 징을 치는 잡음보다 낡을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것의 증세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명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성령의 임계의 일차적인 것으로 볼수있으나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증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핑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잡음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증명하는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교리적 정통성과 성경을 잘 이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격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권 혹은 사람의 책임 같은 모든 비밀을 통달한다 할찌라도 만일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내게 아무 가치 없는 일이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 보고 내가 주장하는 순수한 교리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하여 나의 편을 만든다고 할찌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된다.

나는 올바른 답을 하기보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만일 나의 답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순간적으로 고칠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전 생애가 소요 되기도 한다. 우리가 잘못된 답을 가졌다 할찌라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잘못된 태도와 올바른 답을 가지는 것 보다 낫다. 다음에 당신이 교리적인 위치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할 때에 이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워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그것은 크 계명이다. 또 말씀 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4:20). 그는 질문하기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요한일서3:17).

요한은 그의 첫 번 서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을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반이나 혹은 신앙인들의 사귄데 수종들때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만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일의 가장 중요한 대목의 하나는 사랑인 것이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나 생활에서 나타 내어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12).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서 또한 그의 긍휼 하심을 통하여 사람을 보면서 항상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힘쓰라.

나는 긍휼히 여기는 열쇠는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이에 내가 델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밭강 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칠일을 지내니라.”(그들이 거하는 곳에도 거한다). (에스겔3:15).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당신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한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자신을 한번 놓아 보는 일이다. 그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 나도 앉아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사람이 보는 것을 나도 볼수있게 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만이 사물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의 무례한 행위와 우리에게 대한 언짢은 행동들이 우리를 짜증 나게 할 때도 있다. 나는 제임스 답슨 박사님의 말한 것을 들은적이 있다. 그의 학창 시절에 그가 다니는 학교에 아주 미운 학생이 하나 있었다. 이학생도 자기를 미워했다. 학교를 다닐때에 서로가 미워하여 상극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후에 어떤날 답슨 박사님이 그사람을 어떤 집회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람을 대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었는데 답슨 박사님은 왜 그사람이 밋고 싫은 이유를 종이에다 기록하여 그사람을 맞았을때에 말하기를 자네 내가 학창 시절에 왜 내가 너를 미워하고 싫은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다고 말하고 그기록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읽기를 시작 하였다. 그친구는 그 읽어주는 말을 다 듣고 반응하기를 “나역시 자네를 미워했는데 그이유는 자네가 방금 읽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답슨 박사님은 자기가 나열한 미워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보고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이사실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속에 있는 나쁜 기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발견 할 때는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속에 있는 나쁜 기질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 될 때는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나는 젊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의 베케에션을 보내었다. 나의 생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경험중에 하나이다. 나의 가장 영광스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곤 했다. 나의 가족들이 모두 같이 도행하고 그들이 산과 들의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의 아내 케이는 말하기를 “여보 하지만 당신은 아직 베케이손을 갖지 못했어요”라고 말하면 나는 대답하기를 “오 물론 내가 가졌지요” 라고 답한다.

이제 청소년을 지도할때 “앉으라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하면 앉고”하는 정신 산만한 아이들을 발견 하게 될것이다.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나무에 들을 던지지 말라 그러면 나무 꺾질이 상하여 딱정벌레가 나무를 상하게한다”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들들을 나무에 던지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아이들은 항상 반역하는 심리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운슬러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척 내가 아이디들이 하는 일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참을수가 없으니 내가 그들에게 무슨일을 저지르지 모르니 제발 이 아이를 다른반으로 옮겨 주시오”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내가 “그아이를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면 카운슬러들이 그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같이 걸어와서 “이아이가 바로 내가 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아이를 앉히고 미소를 그에게 띄우면서 무슨 음료수를 마시겠나? 쿡크, 세븐잇, 오렌지 소다, 흑엿을 원하나? 묻고선 매점에 가서 음료수와 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켄디바를 하나사서 준다. 그아이가 처음에 와서 앉았을 때는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차 있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벽을 먼저 허물기를 시작한다. 나는 그아이가 쌓고 있는 담을 허물기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 대화가 대개 이렇게 진행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블랙 켄년”

“블랙 켄년이 어디에 있나? 버르데 강 옆에 있나?”라고 물으면

“이야”

“좋다 너는 학교에 다니니?”

“이야”

“그럼 네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렴. 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오 무슨일이 있었나?”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진적이 없습니다”

“음 참 앓았구나”

자세히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의 엄마는 술집바에 일하고 있으며 저녁마다 다른 남자를 집에 다리고 오며 그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 두곤 하는 것이다. 그 남자들은 집에와서 그 아이에게 거칠게 대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러한 남자들을 자연히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엄마도 이아이에게 흥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가정 사정을 알고나면 나도 모르게 그아이에게 동정심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불쌍한 아이는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이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의 담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주위를 증오로 담 쌓는 일을 배운 것이다. 아무도 자기에게 접근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돌보아 주는 자가 자신 뿐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깨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아이를 데리고 카운슬러 예게로 다시가서 이 어린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이해시켜 카운슬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자주 카운슬러 들에게 이러한 아이들을 가까이 하기를 충고하며 또한 도움을 주고 그에게 많은 주의력을 집중시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은 공급하도록 책임을 맡긴다. 그후 몇주 동안에 갈등들이 동정으로 발전하는 변화를 볼때에 놀라운 일이다.

목사로서 당신의 회중 가운데 같은 경우의 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알고 그들의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하면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될 것이다. 그때에 참으로 그들을 목양할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동정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목양할수없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몇번이나 우리가 읽을수 있나?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였다. 그럼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추구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주님이 당신을 택하여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8-9).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 최고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절대적 균형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갈보리체플 펠로우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을 놓고 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강한신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가 말씀의 교리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논제를 가지고 논쟁할때에 성경적으로 보아 양편이 모두 성경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때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혹은 다른쪽을 제외하는 일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를 통틀어 예를 든다면 성경의 역사에 관해서 논쟁이 될만한 주제에 접근할 때에 발견 할 수 있다. 우리는 전형적인 오순절파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다. 당신이 이쪽이던 저쪽이던지 간에 한쪽편에 가담하는 순간 당신의 반수의 회중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왜당신이 반수의 회중을 잃게되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수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근본문제가 아닌 논쟁거리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할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한 부분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치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 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은혜로운 심령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하나되는 것과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은사들의 정당성을 믿고 오늘날도 이러한 은사가 타나남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피한다.

만일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수 있도록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성경적인 표본으로 간주 한다. 우리는 사람이 방언 하는 것을 성령세례의 일차적인 증세라고 주장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방언을 말 하는것 보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더 믿을 만한 다른 증세가 있다고 믿는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1). 우리는 방언을 성령세례의 일차적인 증후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열매로써 사랑이 있나 살펴본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때에 굳건한 성경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하나다고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격려하는 바이다.

바울이 설명한것과 같이 당신이 사사로이 개인 기도에서 주님께 노래하면서 방언을 할수있다고 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고린도전서 14:14-16). 공중똥입에서 방언 통변도 없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면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말을 이해할수 있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잘 찬양을 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였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질서있게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오순절과 적인 범주에는 맞지 않고 오늘날 성령의 은사들의 표적을 정당한 체험으로 인정치 않는 성령은사 부정 주의자들의 범주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논쟁이 될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 해야할 예는 칼비니즘에 대한 우리의 접근 태도인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섯가지 요점 칼빈 주의자들' 도 아니고 또한 알미니안 도 아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는다. 우리는 당신이 화를 내었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교회에참석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 자의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견인'을 믿는다. 우리는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인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31),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6-7). 사람이 예수안에 거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위는 한쪽에 쫓겨서 '칼빈주의의 다섯가지 요점'을 주장하기 보다 균형된 위치를 취하려고 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본적인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한다면 감리교, 나사렛 그리고 다른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배경을 가진자들이 모두 떠나버려 교회가 비게 될 것이다. 왜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할가?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은 좋은 논쟁의 대상이다. 이문제의 양편 모두를 뒷받침하는 성경구절들이 있다. 요한복음 3:16 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수 있다는 말인가? 이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한정된 대속을 믿는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책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들과 지옥갈 자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진술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 보내기로 정하셨다면 당신은 불운한 사나이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없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부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된 사랑이 의미가 있고 진실하게 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는 균형잡힌 주장인 것이다.

언제나 갈보리채플을 소견 좁은 비둘기 집속으로 넣어려고 애쓰는 자들이 항상 있다. 당신은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물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믿지요 내가 그리스도안 거하는 한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한다. 이제 한번 논쟁을 시작해 본다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당신은 구원의 안전보장을 가질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보장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구원의 안전보장이 있음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를 흠이 없이 말할수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다서 24절).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그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안전 보장을 경험한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은 의미론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몇 말씀을 해석하다가 분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본 갈보리 교회에 한 스태프 멤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각 그룹들을 도와주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한사람이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인도 하였다. 불행이도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 지금 근본주의 라고 불리우는 그룹에 속해있다. 지금은 그가 성경적으로 기초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만일 내가 알미니안 이라면 나는 그가 타락 했다고 말할 것이며 만일 내가 칼빈주의자의 견지에서 볼때에는 그는 결코 구원 얻은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같은 사람을 두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묘사하는 용어에 의해서 분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사람이 그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때에 다음의 두가지 경우는 확실한 것이다. 그가 타락한 것인가? 아니면 그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문제는 여기 있는데 내가 만일 그사람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나의 구원의 안전보장이 어디 있는가?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사람에게는 구원얻은 표가 있다. 주님을 섬길 소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애 쓰고 있음을 본다. 나 역시 주님을 섬길 소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아마 나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지 모른다. 여기서 이러한 것은 나에게 구원의 안전보장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보다싶이 이것은 어의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묘사할수 있는가? 내가 이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타락했다 혹은 구원을 결코 얻지 못했다 라고 나의 견해를 주장함으로써 분열이 야기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리되면 자연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게 마련이다. 내가 그사람을 타락했다고 말한다면 또 다른 한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절반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논쟁을 교회에서 허락 한다면 교회가 분열되기 마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권과 사람의 책임을 모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리적인 독단적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이 둘중의 한쪽을 극단적인 위치를 고집 하고 다른 쪽을 부인 한다면 당신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양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합리화 할수 있을까?” 라고 질문 할 것이다. 나의 대답은 할수없다. 내가 꼭 대답을 하지 않아되 된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단지 믿기만 하라고 하셨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혹은 음란과 간음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맞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사람아 나에게 대해서는 염려 마시오” 내가 어린 소년시절에 빌리그래함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네. 그럼에도 그사람은 술주정꾼이요 간음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사람은 말하기를 “한번 구원 받으면 항상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럼으로 나에게 대해서는 엄려 마시오” 나는 이러한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선언하기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5:21). 나는 또한 그를 고린도전후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깨우쳐 줄 것이다. 나는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이나 타락한 기질의 욕망을 좇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수없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일 예수를 잘 믿는 양심이 예민한 성도가 실수하여 넘어지거나 잘못된 일을 할때에 구원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자가 없다는 말씀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격려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취하는 나의 위치가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쪽이던지 취할수 있고 끝없이 논쟁 할수있다. 나는 양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양쪽편 중의 어느 한쪽을 취한다면 나는 다른 쪽을 취할수 있다. 나는 성경말씀을 가지고 얼마던지 논쟁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편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귀정 사실이다. 만일분명하고 절대적인 가르침이라면 논쟁이 있을수가 없다. 만일 우리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17).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논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백히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 한신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2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이 논제에 대해서 양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논제를 놓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며 다른쪽을 배제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함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회중을 반으로 효과있게 나누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모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성경대학을 다닐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씨름한 적이 있다. 나는 아더 핀크의 하나님의 절대권 이란 책을 읽어면서 핀크 씨가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진술을 읽고 내가 큰 혼돈에 빠졌다. 내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혼돈이 와서 내가 일어나 책을 방구석으로 던져 버렸다. 나는 마치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진 말틴 루터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좌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럴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더러 그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나의 말을 믿기만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나는 그 시점부터 마음이 안정되어 평안을 찾았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양편의 주장을 합리화 시킬수가 없다. 나는 이 양쪽의 주장을 서로 화합할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자주 당면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기차 철로와 같다. 이 두 철로가 평행으로 달리고 있다. 만일 이들이 맞한다면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주장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쪽을 다 믿는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화합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의 한정되고 좁은 이성의 위치로 그 깊은 진리를 감소 시키지 않고 단지 믿는 것 만으로 만족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나의 한정된 지적인 영역안에 넣어 보려고 애쓰는 일은 좌절가운데서 진실한 교훈을 얻게된다. 영원을 이해 하려고 애쓰보라! 무한한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보라! 무한한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쓰보라! 우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보라! 끝이다, 출구가 없다, 이지점에서 더 살수가 없다 라는 표시가 나타날때 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할 수 있는 한계와 이해 할수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크신 분이심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 하시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의 길은 너희들이 찾을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다고 말씀 하셨으면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일은 허사이다. 우리가 찾는 범위를 능가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경계에 도달 했을때는 나의 지적인 면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저히 이해 할수없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이럴때는 나는 거기 서서 나의 이성이 이해할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을 끌어 내리기에는 너무도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경배할 따름이다.

당신이 목회를 시작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권을 말씀하시는 성경구절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럴때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르치라. 그리고 당신이 사람의 책임을 가르치는 성경구절을 접할때는 그것을 또한 가르치라. 이렇게 함으로 당신은 사람들이 균형있는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신할수 있을 것이다.

제 12 장

믿음의 모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6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은 항상 흥분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당신도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중지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길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상한 일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가령 어떤 일을 시작할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혹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면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일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일을 성취해보겠는 일에 자신의 명예도 걸려있고 해서 그일을 성취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일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그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퍼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있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모험적인 일을 해왔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나? 후퇴하는 것이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일을 성공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을 해보려고 우리의 인간힘을 다하는 것은 당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만일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성공할 때에 나는 기쁘하며 “놀랍군요! 주님이 나를 인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일이 성취되지 못할때는 나는 뒤로 물러서서 “나는 이일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코가 납작하게 되었군요”라고 말한다. 사람이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할때에 주의 할점이 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그의 수하에 많은 군대를 두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은 적은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땅에 쳐들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했다. 그들은 병거와 마병의 대 군대를 몰아 왔기 때문에 그 군대의 위엄과 협박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자기들의 군영을 다 버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 이쪽 진영에는 몇사람이 남지 않았고 남아 있는 자들도 공포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밤중에 깨어서 근심된 생각인지 아니면 흥분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시려면 하나님은 전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십만 대군과 같이 역사 하실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잠간 중지하고 이일을 논리적인 견지에서 생각 해볼때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전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것은 그의 목적에 부합되는 한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한사람을 통하여 성취 할수있다. 이것은 도전적이지요 흥분되는 생각이다. 그생각이 요나단을 깨웠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병기는 자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부치실것인지 가서 보자”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 가짐인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자신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바쳐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안적 수척을 세웠다. 그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때에 하는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나”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파숫군에 발견 되었을때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난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야너희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한 두가지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부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모두 멸망 시키리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막연하게 뛰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심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어느정도 조심할 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져 하는 일을 하실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믿음의 모험을 한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몇 년전에 우리는 KWVE 라디오 방송국을 판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에 우리는 KYMS 방송국에 설교 방송을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제정을 원조하고 있었다. 방송국장이 오렌지 카운티에 기독교 방송을 실시 하기위해서 이 방송국을 구입했던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원래 이방송국의 주된 방송 이었다. 그런데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현대음악을 주로 방송하며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잘라 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KBRT 방송국으로 옮겼는데 여기서의 방송료가 엄청나게 비쌌다.

그때 우리가 KWVE 방송국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한번 우리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신청을 올려보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주시해 보자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이 잘 될것이다” 라고 결정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을 “오렌지 카운티에 경배관송과 성경가르치는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여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행동 이었다. 우리는 흥정이나 협상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결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그들에게 주었을 따름 이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이방송국을 구입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말하기를 “좋다” 당신이 하나님께 결정한 태도로 나갈때에 고압적인 장사술은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좋고 주님이 원치 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다. 드디어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수락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KWVE 방송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방송국을 통해서 이 얼마나 영광스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흥미있는 사실은 이 방송국은 이윤을 남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방송국의 요금보다 삼분의일 정도의 금액을 방송하는 자들이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훨씬 더 싸게 요금을 내게하며 그들에게 많은 좋은 청취자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KWVE 방송국을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만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퍼를 내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국 하나가 판매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격을 제의 한후 우리는 그때에 우세했던 미친듯한 장식이 가미된 방송 프로그램 대신에 “기독교의 대사”라 부르는 것을 방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 했다. 우리의 제안한 가격이 수락되지 않아 우리는 단지 포기 하고 말았다. 우리는 그것을 구입하려고 계속 추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단판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몰을 시험한다” 라고 부른다. (주) 몰이 찬지 더운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표현인 것이다.

수년전에 우리는 뎀피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대학이 더욱 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방들이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어 교회에서 각 그룹의 특별 집회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정규적인 교회의 각 그룹의 모임과 동시에 성경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일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다. 그때에 비스타 시에있는 나성 구조선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한 목장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보증금을 걸어 놓았을때에 그목장 근처에 살고 있는 많은 시의회 회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하여 반대 시위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목장을 구입하는 일을 포기 했다. 북덕방이 신문을 보고 우리가 그 목장을 철회한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여 말하기를 지금 아직 공중에게 발표되지 아니한 유리에타 의 온천 시설을 가진 큰 지역을 자기가 판매할 권리를 얻었다고 말 하였다. 우리는 가서 그 시설과 대지를 보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유리에타 온천 시설을 구입하게 되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갈보리채플 코스타메사교회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년동안 기다려 왔던 것이다. 이 6층 건물이 초기에는 우리에게 1,800 만불의 가격을 제안 했던 것이다. 몇 년전에 우리가 1,000만불의 가격을 소유주에게 제안 했으나 그가 거절하면서 “그것보다 더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후에 한사람이 와서 그 건물을 중요한 입주자들을 포함하여 제의한 금액이 890만불 이었다. 이금액은 우리가 제의한 금액보다 백만불이 적은 금액이라 즉시 구입 하였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또한 흥미있는 사실은 만일 우리가 이건물을 먼저 구입하였다면 유리에타 은원은 결코 구입할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부동산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6층 건물이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을 때는 유리에타가 이미 우리것이 될 수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조절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부동산 두 개를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내어 디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인의 발걸음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한 곧 바로 앞으로 걸어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에서는 항상 모험적인 감각이 있다. 당신은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속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그일을 더 추궁하지 않고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추진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해결될 것이며 그일이 부드럽게 진행 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협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렉로리가 월요일 밤 성경공부를 시작 하였을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와 그의 목회를 축복 하셨다. 월요일 밤이면 많은 젊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움을 보았다. 나는 그렉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 여름에 퍼시픽 야의 극장에서 일주간 집회를 하면 어떻겠나, 좀 더 큰 장소를 빌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하시는지 보자 라고 했다. 월요일 밤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유치 하기에는 교회의 장소가 협소하니 퍼시픽 야의 극장을 사용해 봄이 어떠냐? 라고 말했다.

그때가 4월 이었는데 그렉목사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그일을 할수없습니다”라고 할때 나는 반문하기를 “왜 않되나?” 어디 한주간을 빌릴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장소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퍼시픽 야의 극장에 저화하여 알아 보았더니 여름기간에 한주간이 비여 있어 사용 할수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이 집회를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 이름짓고 착수 하였다. 이 한주간의 집회가 너무나 성공적이요 영광스럽게 진행되어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집회의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을곳이 없어 대문을 잠궤야할 형평에 이르렀다. 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여 저들이 보지는 못한다 할찌라도 말씀들 들을수있도록 하였다. 이 얼마나 전율적인가? 여기 자라고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첫발걸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지 보자.

하나님께서 일 하실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자” 우리가 몇푼의 달라를 손해볼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옛말에 “모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과 같다.

구약 성경에서 또다른 믿음의 모험에 좋은 예는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 당했을때 였다. 그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성경에서 엿 볼수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달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분태 사분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2 Kings 6:24-25). 어떤 여인은 자식을 잡아 먹는 일까지 하게 되어 왕에게 간청하였으나 왕은 말하기를 나의 식탁에도 먹을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수 있으랴?라고 대답했다. 그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30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를 입었더라 31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르다 하니라.” (2 Kings 6:24-33). 이 왕은 자기 자신이 야기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흥미있는 특수한 선지자 이다. 그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진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건을 계시하지 않은데 대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교통 하는 선지자 였다. 지금 나의 경우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 주시는데 그럴 때 마다 나는 항상 놀라며 속크를 먹게 되고 흥분한다. 당신의 생활에서도 그러한 일이 몇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지 않을때에 놀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 주실때에 놀라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을 때에 놀라는 것이다.

엘리사가 그의 집에서 친구들과 얘기 하고 있을때에 “흠, 와우! 이런일을 보았나” 그의 친구들이 “엘리사 선지자여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왕이 나의 머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자를 여기에 보내고 있다. 너희는 사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문을 잠그고 사람을 들이지 말라 그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 하느냐” 라고 말했다. 말을 끝내자 문을 두더리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사의 친구들이 그사람을 문에 붙잡아 두고 있을때에 왕이 총리대신과 함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너를 잡았다! 네가 이스라엘을 오래동안 괴롭게 하였구나”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한 것이 내가 아니라 너다. 바알신을 가져와서 백성으로 경배케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자가 바로 너다 너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할때에 그 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럴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했다. (2 Kings 7:1-2; 7:19-20).

왜 총리대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가? 그이유는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그일을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러한 마음 가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볼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애써 보았고 모든 계교를 다 시도 해보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총리대신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할 경향이 많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신다. 그러나 당신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따르는 복을 당신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 사마리아 성밖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먹고 겨우 연명하며 살고있는 네문둥이의 이야기로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문둥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들은 성밖으로 던지는 쓰레기에 의존하고 겨우 연명을 해 왔는데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성안 자체에서도 식량이 부족하여 이제는 성밖으로 버려질 쓰레기조차 줄어들므로 문둥이 중 하나가 다른 문둥이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열왕기하 7:3). “성안으로 들어 갈수는 없으니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빵 부스르기라도 줄것인지 누가 아나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건질수 있을 것이다. 혹시 저희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몸 손해볼것이 없으니 들어가보자”라고 말하고 네 문둥이들이 빵 부스르기라도 얻기 위한 적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 하였다.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많은 교회들이 몇사람만 남아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와 같은 자리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 “자, 우리교회 성도의 숫자가 점점 없으질때 까지 왜 이렇게 앉아 있으야만 하나? 무슨 일을 해보자 아마 일이 잘 될지도 모르고 안될지도 모른다. 우리 교회가 여하튼 점점 쇠퇴하고 있으니 다들바가 무엇이나?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고 놀란다.

나는 역사를 통해서 무슨 종류의 약속 위에서 모든 믿음의 모험을 행하였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알수있으랴? 단지 믿음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찾아보자.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큰 소리를 애굽의 전차들의 공격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짓게 된다. 시리아 군대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왕이 애굽의 용병을 불러 자기들을 공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다급하여 군대진영이 혼돈에 빠져 모두 도망하고 말았다. 이무렵에 네 문둥이들이 와서 시리아 군대 진영의 첫 번 천막에 들어가보니 음식이 식탁위에 놓여져 있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실낱 매불리 먹고 또 보물들을 탈취하고 다음 막사로 가보니 그기에도 같은 형편이 이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음식만 가득히 놓여져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 보물들을 탈취하고 땅에 숨기다가 그들중 하나가 말하기를 “여보게들, 우리가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서 우리만 배불리 먹고 보보물을 취하는 일에만 급급 한다면 재앙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성문까지 와서 성위에 있는 파숫군에게 고함을 질렀다. “시리아 군대진영이 텅텅 비었고 우리 모두가 먹을수 있는 음식이 있으니 왕께 고하여 성중의 백성들이 오늘밤 주린배로 자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왜쳤다. 이소식을 왕께 보고 했더니 왕이 말하기를

“합정이다 저 교활한 시리아 군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프든 것을 알고 우리가 포임에 빠져 성문 밖으로 나올때 저희들이 우리를 급습하여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아무도 성밖으로 내어 보내지 말라 성문을 굳게 잠그라”라고 명했다.

나는 불신의 비극과 그의 대가를 생각 해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는 축복을 잃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보는데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이것은 합정이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 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 한다.

성경의 한 구절이 수년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의미 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 역대하 14장에서 유다나라 아사왕이 통치 하는 이야기이다. 그가 25세때 왕위에 즉위했고 그가 즉위하여 통치를 시작할 무렵에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인근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백만의 대군과 수많은 마차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다. 아사가 대군대가 침입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받은 다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브르짓기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하 14:11).

지금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는데 이계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세워 놓았는데 주님 이 프로그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은 점이다. “하나님이여 내편에 오셔서 도와 주십시오”가 아니었다. 그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편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려고 나아 갑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러한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이길수는 있으나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점이다.

이것은 요나단이 말한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대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단 한사람이라도 하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31에서도 언급 하였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패배시키고 아사왕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사왕이 승리를 거두고 승승 장군으로 돌아올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맞으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15:2). 아사왕이 유다를 통치할때에 아사는 하나님께로 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았다. 그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란 말씀이다.

아사왕이 통치하는 기간동안 왕국은 번영했고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 안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통치의 후반기에 그가 부하고 성공적으로 번영하고 있을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의 유다나라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성들을 재건하여 견고케 하며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그성을 점령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사왕이 그들이 성을 견고케하며 침공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들이 침략계획을 알고 성전 보물고에서 돈을 취하여 시리아 나라의 왕인 벤 하닷에게 주어 용병을 사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리아 군대가 골란 하이트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남쪽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들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시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배치 했던 것이다. 이럴때에 유다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성을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결과를 본다면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된것 같이 보인다. 아사왕은 두말할것 없이 자기의 눈부신 전략이 들어맞아 그의 승리에 대해서 자랑 스텝게 생각하며 축하연을 열고 즐거워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돈이 과연 좋구나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겠군 이라고 아마 상각 하면서 돈의 위력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시리아 군대를 채용할수 있다. 그들은 용병이며 돈만 주면 우리를 보호 할수있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성공적인 전략이나! 라고 축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할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톱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역대하 16:7-8). 당신이 적고 힘이 없을 때 에티오피아의 침공을 직면 하지 않으나 그때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셨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은 힘이자라고 강하게 되니 당신의 힘을 의지 하게 되었다. 당신은 이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역대하 16:9). 이것이 열쇠이다. 하나님의 눈은 온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일을 하여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 자신이 강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열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발견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길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더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 내었다. 시험하여 보라.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러보자.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항상 취해야할 태도는 “만일 성사가 되지 않을때는 그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서는 않된다.” 그 계획을 그만두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음이 분명할때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 부쳐 일이 되도록 애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 에서도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그를 베알하라고 할 때에 그녀는 말하기를 “왕에게 무턱대고 들어가서 왕을 베알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불러야만 들어 갈 수 있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 간다면 당신의 생명을 잃을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럴때에 모르드게가 대답하기를 “만일 이 칙령이 통과 된다면 네가 네자신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네가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 올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 마신다. 이스라엘나라가 완전히 없어 질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비록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 하시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일이 이러한 경우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져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 할수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 당신이 대답 하다면 그일에 그릇으로 쓰임 받을수 있다. 에스더 에게는 왕이 부르지 않는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담한 일이다. 만일 에스더가 들어 갔을때에 왕이 그가 가진 홀을 들지 않으면 그녀는 즉시로 사형에 처해 지는 것이다.

몇 년전에 “복음 풍선”이라 불리우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 출석을 늘이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한 전형적인 교회 프로그램 이였다.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수단, 방법을 채택한 사실을 볼 때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큰 고무 풍선을 교회위에 높이 매달아 그 풍선 위에 교회 초청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풍선 위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록도 했던 것이다.

고무풍선을 계속 높이 달아 두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람이 고안한 방법인 것이다. 드디어 폭풍이 불어 사람들이 나가서 그풍선이 날아 가지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이귀찮은 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큰싸움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들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교회 성도의 반은 다른 남은 교인들의 대해서 화가나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의 방법으로는 교인들을 불러오기 오다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초창기에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 우리가 1500불이라는 돈을 풍선 구입 하는데 사용 하였는데 이 풍선을 계속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실수했다. 모두 잊어버리고 바람에 날려 가겠으면 날아가게 두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치우려고 하시는데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나 라고 말을 했어야 좋을텐 하였다.

몇 년전에 내가 텍사스의 루박 이라는 곳에 남침례교회에 강사로 초청 받아 갔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말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유지 하고져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죽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이 교회가 자주 행하는 실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때가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간다. 불행이도 사람들은 그프로그램을 계속 유지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전통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하여 계속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은 이러한 죽어가는 프로그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것이 자연사 하도록 내 버려두는 것을 배워야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져 하는 일을 찾자” 라고 말하는 대신에 과거에 하신일만 돌아보고 있는 것은 항상 퇴보하는 증세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들고만 있기 보다 우리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자신들을 위해서 하시고져 하는 일을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일에 관하여는 성공하는 각 세대가 첫번 세대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념관을 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람을 어떻게 쓰신 것을 보라 또 하나님께서 이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신 것을 보라!” 라고 말하기 시작할때는 조심하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관을 지을때 그때가 항상 비극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활속에서 새롭고도 생기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갈보리 체플에서 영광스런 방법으로 콘서트를 하신 때가 있었다. 토요일 저녁 콘서트는 우리가 가졌던 복음전도의 도구으로써 가장 크게 효과를 나타냈다. 토요일 콘서트 때에는 사람이 너무많이 와서 장소가 비좁았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많은 음악 밴드를 불러와서 연주를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앞으로 나왔다. 만일 남가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원을 얻는곳이 어딘가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갈보리체플 토요일 콘서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콘서트를 한때 사용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지나갔다. 약 2년전에 어떤자가 토요일 콘서트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말을 할 때에 나는 말하기를 “한번 해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갔다. 그것을 계속해 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때는 지나갔어”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점점 약해가며 생동을 잃고 있으니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였다. 앓되는 일 억지로 살려 보려고 애 쓸 필요가 없고 그대로 가게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더라 만일 일이 잘되면 즐거워하고 만일 일이 잘 앓되면 다른 것을 찾아보라. 나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만일 일이 잘되면 영광이요! 일이 잘 앓되면 그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이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일을 부담없이 그만 들수가 있다. 그일에 너무 깊이 관련하여 헤어가지 못할정도로 자신을 얽어매어 묶어놓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일에 두려워 말라. 영으로 시작 하였다가 육으로 완성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본다. 심지어는 시작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회를 축복 하셨는데 불행이도 그들은 너무나도 조직을 잘하여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속에서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성령으로 시작 하였다가 육신적으로 완성을 보려고 하지말라. 이것이 항상있는 실수이다.

나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의 모험의 비전을 가진 많은 목사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감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일에 도구로 사용 하심을 허용 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 주셨는가를 생각 할때에 전율을 느낄 뿐이다. 열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알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아직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하나님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 이심을 나타 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발견 했으면 투신하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어떻게 축복 하심에 대해서 놀라며 감탄하게 될 것이다.

<앞표지>

갈보리 채플의 특징

갈보리 채플 운동의 기본적 원리

척 스미스 지음

김동백 역

<뒷표지 번역>

무엇이 갈보리체플의 특징을 만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펠로섬에서 하신 특징적인 일을 포착 해 보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다. 만일 갈보리 체플이 길건너 편에 있는 교회와 아주 똑 같다면 차라리 이 두교회가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믿는바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갈보리체플 운동에서 우리를 다른곳과 차이를 나게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믿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강한 강조를 하면서도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허용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고 믿고 있다.

갈보리체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이 갈보리체플이 가지는 특징이며 독특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운동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속하며 자라게 허용 하시는지 그 이유를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 스미스 목사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적인 목사들 중에 한 분이다. 그의 목회는 60년대 와 70 년대에 혁명적인 미국의 젊은 이들로 부터 발생 하였다. 그의 '오늘의 말씀' 이라는 라디오 방송은 미국 전체에 수백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방청되고 있다.